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OCT 2 1981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30 1981년9월28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September 28, 1981

냉대받은 「북한방문」

"김일성과 만찬"운운에 참석자들 흥분

LA오렌지카운티 한인라이언스클럽이 개최한 『북한과 기독교』주제의 강연회는 연사가 한때 종교적연제와 다르게 북한선전강연으로 흘러 흥분한 참석자들이 연사에게 항의, 강연이 중지되는등 소동이 벌어졌다.

(LA지사) 이날 하오8시 초원식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연사인 김성낙목사는 주제와는 달리 서두부터 『평양시가 6·25의 상처를 씻고 아름답다』『도로가 8차선으로 건설됐다』로 시작했다.

김목사는 『한국동란시 평양시민이 40만이었는데 폭탄이 40만개이상이 투하되어 전멸됐다』라는 등의 얘기와 함께 『김일성과도 만찬을 나누었다』는등 계속 10분간 북한선전을 늘어 놓자 참석자들이 크게 흥분했다.

한노인회원은 『여기가 김일성의 선전장인 줄 아는가』라면서 주제와 다른 선전연설에 크게 항의했으며 참석한 다른사람들도 이에 동의를 표하면서 주최측과 연사에게 주제발표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항의로 강연회는 약15분간 중단됐으며 주최측이 연사에게 주제에 충실한 발표를 할것을 권유했으며 참석자들도 성토는 연사발표를 청취한후에 하기로 하고 강연이 속개됐다.

다시 강연을 계속한 김목사는 북한기독교 실태에 대하여 『내가 듣기로는 평양에 7백명내지 8백명정도의 신자가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들이 진짜 신자인지는 나도 모른다』고 말하여 실지로는 교인과 접촉도 못했음을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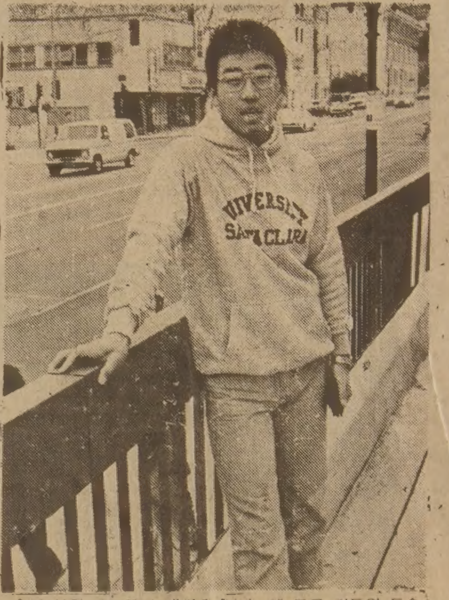
그리고 『일본상선을 통해서 성경을 북한에 보냈는데 사실은 전해지지 않은것같다』는 대부분의 강연내용이 북한안내자로 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로 일관해 참석자들은 『북한당국자의 전하는 얘기를 강연하는 것은 그들 선전에 놀아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정호영씨는 질의 응답시간에 『교회도 없이 신자만 7~8 백 있다는 그들 주장은 정치쇼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한실정을 모르는 김목사를 북한이 이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목사는 『어떻게든 민족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및 적화통일 방법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최동원, 블루제이스 입단 거부

61만달러중 20만달러는 사탕발림?



◇지난8월 에드몬톤 대회후 L.A.에 들른 최동원 투수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을 체결, 82년부터 블루제이스 투수로 등판하기로 했던 최동원 투수는 계약상의 내용이 기만적인 것이라고 입단을 포기, 블루제이스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2일 블루제이스의 최동원 입단발표에 이어 최동원 선수는 24일 서울서 기자회견을 갖고"그들이 약속했던 최소한 32,500달러가 실은 내가 받을 수 있는최대의 금액이었다"면서 계약서에 서명후 이 사실을 알고, 엘리옷·와일등 블루제이스 관계자에 항의했으나 말도 없이 가버렸다며 "이 조건으로는 절대 블루제이스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에 접한 블루제이스는 엘리옷·와일 인사부장을 통해 다싱 성명을 발표, "우리는 9월15일 서울에서 최선수및 그의 부친 최윤식씨와 함께 충분한 협의후 계약서에갈이 서명했다"고 말한 후, 최동원 선수와의 계약은 아직도 유효하며, 이미 이사실을아메리칸리그 대표와 북미의 모든 프로구단에통보했으므로 「최」선수가 내년도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스프링캠프에 참석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엘리옷·와일 부장은 최동원측 계약파기 선언후 본보로 다시 통보, 익스비션·스타디엄으로 초청, 계약서의 내용을 보여 주었다.

블루제이스는 앞으로 4년간(82~85년) 최동원 선수가 활약여하에 따라 미화 61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82년 첫해에 93,500달러, 83년에 116,500달러, 84년에 165,000달러, 85년에 23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보기자가 취재한 계약서의 내용은 82년 첫해에 계약금조로 1만달러와 봉급 33,500달러이고, 만약「최」선수가 메이저리그 올스타 선수가 되면 매해 25,000달러씩, 그리고 일년에 단 1명에게 주는 사이영상 투수가 되면 추가로 25,000달러등 모두 합해 93,500달러가 되었다.

바로 이 메이저리그 올스타 모항「사이영」상 조항이 「최」선수측과 블루제이스구단의 계약상 문제점으로 됐다.

「최」선수는 이제 처음등장하는 메이저리그 선수로 올스타 투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올스타 투수는 북미 프로야구 26개구단중 아메리칸리그와 내쇼날리그의 올스타전에 등판하는 투수로, 간단히 말해 13:1의 경쟁이나 기라성같은 미국투수들을 물리치고 올스타에 선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일년에 수백명의 투수중 단2명만 선발되는「사이영」상에 선택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본보는 24일밤 한국일보·일간스포츠 양삼 체육부차장과의 대화에서 "최선수는 일단 가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상 이 조건에서는 가지 않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다만 조건만 개선되면 한국이든지 캐나다든지 어디서나 재협상에 응해 다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기자에게 블루제이스의 엘리옷·와일 부장은"이미 계약사실은 북미프로야구협회나 각구단에 통보됐고, 양국정부에도 통보됐다"면서 "우리는 한국정부의 최동원 선수 출국허락만 기대한다"고 말했다.

와일 부장은 이미 9월안으로「최」선수가 출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블루제이스측은「최」선수와의 계약문제로 24일 수시간동안 대책을 협의했고, 곧 다시 와일 부장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방안등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제이스는 창설된지 5년이 됐으나 아직도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루수 대니·에인지 선수의 소송문제로 골치를 썩히고 있다.

에인지 선수는 프로야구선수로 금년봄 블루제이스에 입단했으나 그의 재질은 농구에도 뛰어나, 보스톤·셀틱같은 유명구단이 스카웃을 노려 소송전이벌어졌다.

에인지는 거의 보스톤·셀틱으로 옮겨 프로농구선수로 활약하는 문제가 결정난 것같다.

영업소개 리셉션

외환은행지점 주최

◇이장우외환은행장

캐나다한국외환은행은24일 저녁 토론토한인회관에서 교민들을 초청, 리셉션·칵테일파티를 열었다.

약 120명이모인 이날 파티는 저녁7시 30분경 이수신전무 사회로 이장우은행장의 업무소개겸 협조당부, 행원소개에 이어 구상회, 조한철 두이사의 인사말이 있은뒤, 교민측에서 함필용옹의 축흥축사로 절차를마치고, 대화와 친교의 칵테일파티로 들어갔다.

오는 10월6일 토론토킹·스트릿×요크·스트릿(First Canadian Place 11층)에서 개업하는 동은행의주역은 아래와 같다.

은행장 : 이장우
전무 : 이수신
대부 : 제임스·길모어(32년간 금융계 투신, 전 로얄은행 지점장)
수출자금과 : 김승서
예금 : , 외환, 적금과 : 김남수
운영, 어카운트 : 강명준
서무 : 모니카 민
안내내 : 수잔 슐츠
이사 : 구상회·조한철·홍세표(뉴욕 외환은행 지점장겸 미주지역 본부장)·갓드리·에브(변호사)·이장우

이날 리셉션에서 이장우 은행장은 8월20일 영업허가를 받고, 10월6일 개업하는 이 신생아(은행)를 여러 교포들이 따스히/ 감싸고 길러주기를 신신당부했고, 구상회박사는"은행문을 열어도 교포들의 뒷받침이 적어 업무가 부진하면 모처럼 어려운 영업허가를얻었어도 캐나다사회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니, 교민들이 도와서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조한철박사는 단시일내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오는 6일 문열게된 것은 전 은행원의 놀라운 노력과 열성의 결과로 높이 치하했다.

노벨平和賞 후보 60여명

스웨덴 노벨賞위원회가 등록상황 밝혀

맥나마라 世銀총재·영국外相등도 포함

〈스톡홀름〉 81년도 노벨평화상수상자로 60여명 후보가 등록됐다고 22일 스웨댄 노벨상위원회가 발표했다.

후보자중에는 남아프리카의 교회협의회 회장이며 성공회주교인 데스몬드 투투를 비롯 로버트 맥나마라 세계은행 총재, 영국의 로드 캐링톤외무장관, 오스트리아의 브루노크라이스키수상등이 포함돼 있다.

중공 친북한 연설 고려 연방제 지지

(유엔23일=연합)중공은 한반도 통일에관해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고려연방공화제」를 지지했다.

36차 유엔총회연설에서 창웬진 중공외무부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고, 려연방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라고 말했다.

창차관은 미국이 아직까지도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나 예전과같이 과격한 언사는 쓰지않았다.

한편 창차관은 소련의헤게모니즘(국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사상)을 신랄히 비난하면서"소련의헤게모니즘에 의해 자행되는 침략과 영토확장은 세계평화에 계속적인 중대위협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모국수해의연금 농대동창회 모금

서울대학농대동창회는 풍수해로 피해가 심한 모국의 이재민들에게 의연금을 보내기로 결정, 동문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동회는 지난 4일 유달영교수 환영 디너파티석상 175달러의 의연금이 걷혔다.

한편, 동문들의 올해 한국농장 일손돕기를 10월24일(토)~25일 실기키로 했다.

에너지수입 67억달러 1인당 178달러

(서울24일=연합)작년한해동안 3천7백만 한국인이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기위해 1인당 12만2천원(약 177.5달러)을 부담했다고 24일(목)동력자원부가 발표했다.

한국은 작년 외국에서에너지자원을 수입하는데 67억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이중 60억달러를 석유수입에, 나머지 7억달러는 석탄수입에 지출했다.

한국의 에너지자원 수입은 총수입의 38%를 차지하며, 총 에너지 수요의 70%를 충당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금주의 행사▷

(9월28일~10월4일)

◇9월29일(화) 하오7시 : 와이즈맨즈클럽(베타) 청용회 강연회
한인YMCA(St. Clair×Oakwood, 1블럭 East)
연락처 : 536-1166(YMCA)

◇10월2일(금) 하오7시30분 : 문동환박사 강연회
온타리오교육회관 2층 204호실
(252 BLOOR ST. W.)
연락처 : 787-0572

◇10월3일(토) 상오11시 : 「한인의 날」기념식
토론토한인회관
연락처 : 755-9288(한인회)

◇10월3일(토) 상오8시~하오9시 : 노년회 단풍놀이
따우즌 아일랜드
연락처 : 755-8079

◇10월3일(토) 상오9시~하오8시 : Y 단풍관광
3만섬
연락처 : 536-1166(YMCA)

◇10월4일(일) 하오3시30분 : 신복균박사 강연회
St. Paul성당
연락처 : 863-0415

韓日關係 전망미묘

會談계속되더라도 合意點찾기힘들듯

LA타임스 보도

LA타임스지는 23일 특집기사난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새로운 문제가 싹트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발 기사로 이신문은 한인관계 정상화 이후 김대중 사건으로 악화되었던 한일관계가 양국의 외상회담을 계기로 풀리는듯 했으나 60억달러의 차관문제로 다시 미묘해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LA타임스지는 과거 36년간 식민지시절의 추억과 김대중사건, 그리고 한반도 안전을 위한 양국의 역할에 대한 상이한 의견치로 한일 외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또 앞으로 한일 양국간의 회담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양국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 전망은 밝지 않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종합보험

강학수
Canada Life
15년간 근무중
상 점 보 험
화 재 보 험
자동차보험
생 명 보 험
은 퇴 연 금
R. R. S. P
세 금 공 제
B) 868-0922
R) 622-5147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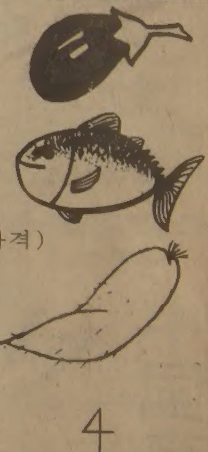
서울식품 'BIG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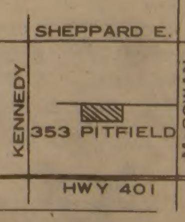
한국·미국으로부터 대량직수입 SPECIAL!! 세일기간 9월8일(수)부터…

		REG.	SPECIAL
●불고기등심	Lb.	2.59	2.20(10파운드제한)
●갈 비	Lb.	1.69	1.29(박스제한없음)
●소꼬리	Lb.	1.35	1.09
●참기름깡통(일본제품)		10.90	9.50
●한국농장용 배 추, 무, 풋고추	} 농장가격으로 그냥 서비스		
●명간장	1 gal		6.90
●양잠피	1 kg	2.25	1.80
●삼양라면	1 박스(50개)당15봉지 Free		
●삼양냉면	1 박스 5인용	24.00	19.00(1 박스제한)
●청수냉면	1 박스 2인용	24.00	19.00(1 박스제한)

		REG.	SPECIAL
●오징어젖	Lb.		80¢ (특별가격)
●한국고추가루	Lb.	3.50	2.90
●어리굴젖	Lb.	4.90	2.90
●각종선물용상품(gift) —20% 디스카운트			
● 쌀 : 미국에서 도착즉시 추가 세일할 것임			
●삿보로라면		13.90	11.50
●산요보온밥통		128.00(특별가격)	

주소 : 353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5

EAST ASIAN LIBRARY / UNIVERSITY OF TORONTO / OCT 8 1981

L.A. 한국일보 「퍼레이드」

◇8번째 맞는 한인 대잔치—20일 하오 올림픽 연도는 미국속에서 한인들의 긍지를 되새긴 9만의 함성이 가득했다. 장장 1마일에 뻗힌 3천5백여 대 행진에 연도를 가득메운 인파들은 26대의 꽃차를 비롯 3백여 참가팀들의 농악대, 바라 춤등의 민속과 미국팀들의 묘기가 펼쳐질때마다 모두 한덩어리가 되어 열광했다.

손님들에. 人氣

KAL의 「프레스티즈 클라스」

2등석 요금에 50弗 추가지불하면 돼

서울서 美洲行여행자의 이용율 높아

KAL이 지난 6월부터 1등석과 같은 편리를 주는「프레스티즈·클라스」(PRESTIGE CLASS)는 3개월이 지난 현재 승객들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 2등석요금에 단지 50달러 추가요금만 지불하면 1등석 손님과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비즈니스맨들이나 편안한 여행을 원하는 승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6월1일 「프레스티즈·클라스」가 실시된 이래 첫 배달은 약10%의 고객이용율을 보였으나 3개월이 지난 9월1일 현재 평균50%의 이용율의 실적을 올렸다.

특히 서울에서 미주지역으로 여행하는 승객들이 미주에서 서울로 가는 승객들보다 이「프레스티즈·클라스」를 이용하는 경향이다.

현재 보잉747 점보제트기에 배편 20석의「프레스티즈·클라스」를 마련해 놓고 있는 KAL당국의 한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좌석을 증가시켜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승객들보다 미국인승객에게 더 잘 알려진「프레스티즈·클라스」는『항공여행의 편리를 누구보다도 미국인들이 빨리 이해하는 것』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프레스티즈·클라스」를 이용한 교포 김석찬(42, 컴퓨터프로그래머)씨는『무엇보다도 2등석 요금에 단돈 50달러만 지불하여 10시간이상의 직행항공여행을 1등석대우를 받을수 있어 편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씨는『여행시 유아까지 동반했는데 따로 추가요금없이 함께「프레스티즈·클라스」대우를 받게되어 이익을 본 셈이 됐다』고 장점을 말했다.

「프레스티즈·클라스」는 1등석과 2등석 사이의 특별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공항카운터에서 부터 1등석카운터를 사용하게 된다.

좌석도 발판이 붙은 1등석과 동종의「드리머레트시트」(DREAMERETTESEAT)로 50도까지 뒤로 젖혀져 가죽외자에 포근한 감촉을 느끼게 되며 2등석과 같은 복잡성이 없다.

이같은「프레스티즈·클라스」는 동경에서 출발시나 동경행승객이외에는 KAL 미주전노선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제도를 원하는 승객은 각항공여행사에서 예약을 받을수 있으며 공항카운터에서는 좌석이 남는 경우에만 현장에서 50달러를 추가,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인기를 모으고있는 대한항공의「프레스티즈·클라스」

할로인의상 강습회

의상전문가 배운송 여사 지도로

의상전문가 배운송 여사의 지도로(YMCA 주최)할로인 의상 만들기 강습회가 10월14~16일 토론토한인Y회관(15 Robine Ave.에 서) 열린다.

배여사는 이 강습회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 교민들이 이곳 캐나다에 와서 매년 10월말이면 연례행사로 전해오는 할로인을 구경만 해왔으나 2세들의 성화로 겨우 몇몇 의상등을 만들어 보지만 방법도 모르고, 비용만 많이 들인다고 말했다.

토론토의 피아니스트 심소자씨의 어머니인 배운송 여사는 42년 동경여자의상전문학교를 졸업하고, 73년 캐나다에 이민오기 전까지 서울YWCA, 서울시 부녀사업관등에서 의상강좌를 해왔었다.

캐나다 이민후 사돈인 김자경 여사의 권유로 말라바, 커스텀하우스등에서 오페라의상등 무대의상을 연구 제작해 왔다고 배여사는 말했다.

할로인데이는 이미 성년인 교민들에게는 필요 없으나 학교에 나가는 2세들에게는 꼭 중요한 명절이다.

한국인 의상 강습회 문의는 한인YMCA나(536—1166 Mr. 김), 또는 배운송 여사(466—0579)로 하면 된다.

아파트서 추락사
젊은 부영사 부인

(시카고지사)시카고총영사관의 김안기 부영사부인 이영희(23)여인이 22일낮 12시15분께 18층 아파트에서 추락, 30분후 사망했다.

이날 이여인은 고국서방문온 외숙 배정기(40)씨와 낮1시에 쇼핑을 함께가기로 약속했고, 배씨를 이날 밤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배씨는 이여인을 만나러왔다가 사고를 알았다.

경찰은 2909 노스·웨리단 거주하는 이여인의 추락사고가 단순한 사고인지 여부를 캐기위해 검사하기로 했다.

대규모 낚시대회
한인낚시대회

4년전에 창설, 이제까지3번의 낚시대회를 치른 토론토한인낚시협회(회장 정삼렬)는 현재 약 300 명의 회원을가진 큰 단체로 성장했다.

8월하순 임기2년의 새임원진을 선출한 동협회는30명의 운영진으로 구성, 아래 인사들이 주역으로 뛰고있다.

회 장：정삼렬
부회장：곽창수
총 무：최남해
서기겸회계：이정호

낚시협회는 10월하순 께 대대적 낚시대회를 거행키로 계획중이다.

백악관 비밀경호원
銀行털 혐의로피체

〈볼티모어〉 백악관비밀경호원 존·아더·바크만2세(29)가 매릴랜드주로렐에 있는 시티즌·내셔날뱅크에 무장강도를 한 혐의로 체포돼 그의 신원이 확인된후 일단 풀려났다고 연방수사국(FBI)이 23일 발표했다.

바크만은 백악관경호실정복경호관으로 지난 21일 무기를 들고 은행을 턴 혐의로 체포됐다.

에너지개발 계획
한국정부서 발표

〈서울—UPI〉 한국은 22일 오일사용을 줄이고 원자력과 액화천연개스(LNG) 사용을 증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동자부가마련한 이계획에 따르면, 이개발계획 기간동안 한국의 에너지 수요는 연간 7.2% 증가된다.

원유 소비량은 연간 5.6% 증가되어 86년에는 2억6천1백만 배럴에 이를것이나 목표연도의 오일 의존도는 49.8%~60.3%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논 단〉

한·가 정상회담과 이민문제

윤 방 현(본보 편집자문위원)

트루도 캐나다 수상이한·가 정상회담을 위해 25일 서울로 향발했다.

금번 캐나다수상의 한국방문은 한가 양국간의 국교수립 이래 처음있는 일로서 모국정부를 비롯하여 캐나다 4만교포들의 환영을 받고있다. 이번 방문이 우리에게 의의가 큰 점은 그가 우리교포들이 살고있는 나라의 수상이며, 30년전 6·25동란중 한국의 국토방위와 자유수호를 위해 북한공산 집단에 대항하여 싸워준 우방국의 지도자라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정상회담의 시기가 오랫동안 끌어오던 캐나다 헌법개정문제가 판결을 받는날(28일)과 동일하여 트루도는 이 판결에 따라 그의 정치생명이 좌우되는 중대한 순간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국내의 복잡한 정치문제와 날로 치솟는물가고, 은행 모기지와 이자 상승등 국민의 빗발친 여론을 물리치고, 수상자신이 방한을 결단내린 것은 국내에서의 정치 입씨름 보다는 실질적인 정상급 외교에 중점을 둔 때문이라고 보겠다. 즉 트루도수상은 부유국과 빈곤국 대화에서의 한국측 지원, 유엔에서의 외교적 지원및 한가 양국간에 상호무역증대와 경제협력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는데 역점을두어 방한을 강행하는 것으로알려졌다.

먼저 캐나다 측으로 볼때는 15억달러 상당한 캔두판매를 종결짓고, 전기통신기재및 경비행기 수출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한국측으로서는 1.12, 6.5 남북정상회담 제의와 남북한유엔동시 가입문제에서 캐나다측의 지지를 추구할 것이고, 그이외에 양국간의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이익을 위해 건설,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합작투자 장려및 투자보장 협정등의의 슈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

차제에 기억나는 것은지난 2월 한미정상회담때 전대통령이 미주 교포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보여 그동안 조국을 등지며 대하던 반국가 반정부 인사들을조국의 품으로 끌어들이려는 성의를 표한점이다. 이번 한가정상회담에도 대통령은 교포들의 소리를 경청하여주기를 바란다. 이미 본지에서는 다각도로 정계 고위층, 장관, 청와대비서관및 국회의원들을통해 이민문제를 제기, 캐나다가 한국이민을 더많이 받아들이도록 촉구해 줄것을 요망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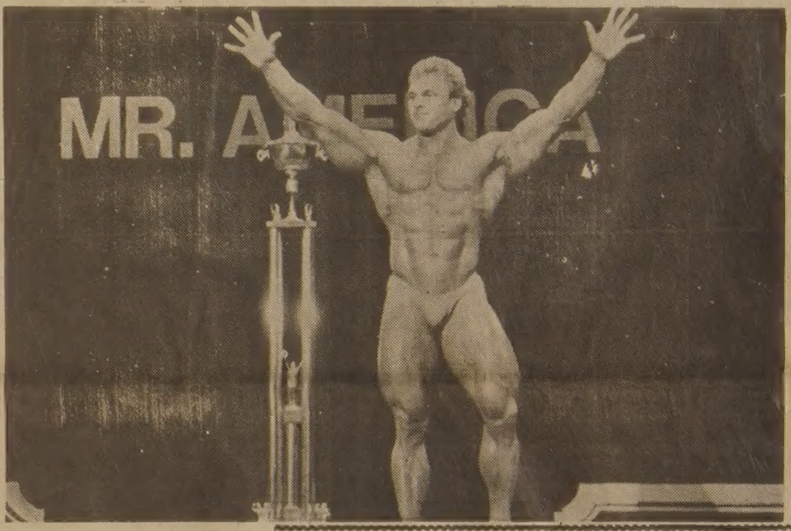
바라건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교포보호정책과 인력수출에 큰 역점을 두어 이민문제가 공동성명 에서도 꼭 명시되기를 바란다.

이길만이 교포들을 조국의 품으로 이끄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되어 적극적인 자세로서 회담에 임해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反體制인사 편파보도
中共, WP紙추방경고

〈북경〉 중공외무성은 중공반체제인사의 강제노동현황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특파원에 대해『한번만 더 이런 편파적인 보도를 하면 모든 필요한 조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은 워싱턴·포스터지 북경특파원 마이클·와이스코프를 외무성으로 불러 만일 또다시 반체제인사에 대한 보도가 있으면 이후에 중공정부가 취할 어떤 조처에 대해서도 해당기자와 해당신문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스터 아메리카—지난 5일 라스베가스에서 미스터 아메리카로 뽑힌 팀 벨크냅(일리노이출신)씨의 근육미—그는 미스터 유니버스에도 참가한다. 〈UPI〉

구독 신청은
TEL：(416)533·2361

〈독자수상〉

미망인이라는 여인들

이 명 숙

요즈음 교포신문에서 미망인이나 이혼녀들을 농락하고 잠적한 파렴치한의기사를 읽은적이 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주위에 비일비재하여 제3자의 흥미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한아들 에게는가슴에 피맺힌 불행이 아닐수 없을것이다.

남편이 사교춤을 가르치는 일명 "춤선생"이었기때문인지 유난히도 내 주위에는 미망인들이 몰렸었다. 혼자사는 이들은 외로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잊기위해 춤을 배우러 왔다.

미망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순간부터 나의삶도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 밖의세계와 단절을 고하고 서서히 내자신을 파먹으면서 안으로안으로 위축해 들어갔다.

인간은 언젠가는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숙명을 인간들은 망각한다. 자기들한테는 그리한 불행이 결코 오지 않으리라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혼자된 사람들을동정과 사랑으로 대하기 보다는"팔자가 세서 그렇다"는등 은연중 조소와 경멸이 섞인 말로 과부들의 마음을 울린다. 또 이들은 색안경을 끼고 미망인들의도덕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나의남편은 살아생전에 많은 과오를 저질렀는데, 남편과 어울린 대상은 그렇게 많던 주위의미망인들이 아니라 훌륭한 남편을 두었다고 자찬하던 정숙한(?)유부녀들이었으니 이것또한 아이러니가 아니겠는가?

미망인도 정상적인 인간이다다만 남편이 있다가지금은 혼자가 되었을 뿐이다. 이런 미망인들을 이해와 동정으로 대해주는 마음이 아쉽다. 또 미망인 자신들도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실의에서 빠져나와새삶을 창조해야 할것이다.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前 시카고大 영어연구원장】

I ENJOYED IT VERY MUCH.

미국에서 한국민속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그때 한국어와 영어토사회를 보았던 필자에게 공연이 끝난후 미국인들이 찾아와서『정말훌륭한 공연이었다。』It was really a fantastic performance. Wonderful하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홀을 나오면서 미국인들에게『재미있게 감상하셨읍니까?』Did you enjoy it?하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정말멋있었읍니다。I enjoyed it very much. 라고들 하였다。

훌륭한 연설이나 공연이 끝난 후 관계자에게 할수있는 얘기가 바로 I enjoyed it very much.이다。조금더 강조해서 표현한다면 I enjoyed every minute of it.이때 every minute of it은 순간마다라는 뜻이니까『정말 즐거웠다』라는 얘기가된다。

A：Do you enjoy listening to the radio?
B：Yes. I enjoy listening to the different talk shows.
A：Some of them are very informative.
B：Yes, and listening to the radio is a good way to study English.
A：Oh, are you trying to improve your English?
B：Yes, I am.
A：라디오 듣기를 즐기십니까?
B：예。그렇습니다。여러가지 다른 대담프로를 즐겨듣고 있읍니다。
A：어떤 프로는 매우교육적입니다。
B：네, 라디오 듣는천 역시 영어를배우는 좋은 방법이죠。
A：영어실력을 향상시키려고노력하고 계세요?
B：네, 그렇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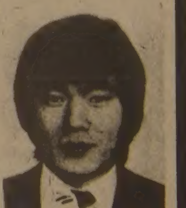
※註 informative：교육적인。예—회담이 끝난후「우리의회담은 건설적이고 많은것을 배웠다。」Our meeting was very constructive and informative.
improve：개량하다。예—그동안영어실력이 많이 느셨군요。Your English has improved a lot.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약은 없읍니다.
中国商業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 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大中華藥材行
482 DUNDAS ST. W. TORONTO, ONT. M5T1G9
P.O. BOX 5181
STATION 'A' TOR., ONT.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OPEN：WEDNESDAY
CLOSE：TUESDAY
*영업시간：9：00AM~9：00PM
977-8858~9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529 BLOOR ST. W.
전 화：533-3545~6, 533-1500

일본스테이크 집
Kabuki JAPANESE STEAK HOUSE
전형적인 일본식
STORE HOURS
평 일：
스페샬점심시간
11：45AM~2：30PM
5：00P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In a class by itself"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597-1255-6
Reservations accepted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GM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각종 웨곤(WAGON)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하나님도 TV를 보는가

TV부흥宣教師 對 主流기독교의『聖戰 한창

하나님도 TV를 보는가, 아니면 TV종교는 싸구려 종교인가.

TV를 통한 부흥선교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기독교 주류교회 목사들과 부흥선교사들의 「성전」(HOLY WAR)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성전을 치르고있다」라는 말은 레건캠페인때에 제리·팔웰이 한말.

제리·팔웰의 모랄·머조리티 동료들은 물론, 반대파인 주류교회 목사들도 그의 이 말에만은 동의를 표한다.

부흥선교사들이 TV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것은 1950년대.

빌리·그래함, 오랄·로버트, 렉스·험바드가 주류교회가 남겨놓은 공백을 목표로 TV 설교를 시작했다.

오늘날 이들의 인기는 TV시리즈 「달라스」의 JR유잉을 뺨칠정도.

잘생기고, 젊고, 말잘하는 이들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선교사는 제리·팔웰이다.

그의 고향, 버지니아 린치버그에서 방영되는 「올드·타임 가스펠·아워」는 1년에 5천만달러의 헌금을 거두어들인다.

그헌금은 물론 팔웰이 추산하는 1천5백만 시청자(다른 정보원은 4백만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한다)로부터 보내어진 것이다.

팔웰의 프로그램보다는 시청자수가 약간 적지만, 짐·베이커의 「PTL」(프레이즈·더·로드)은 1년에 5천1백만달러를 거두어들인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방영되는 「PTL」은 3백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있다.

제리·팔웰이나 짐·베이커보다 더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는 선교사는 팻·로버트슨.

기독교의 「투나잇·쇼」라 불릴수있는 그의 「700클럽」은, 3백만시청자 로부터 연간 5천8백만달러의 돈을 거두어들인다.

루터란교회의 찰스·버그스트롬 목사는 『부흥선교사들은 값싼 종교를 배급한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1주일에 1시간동안 TV앞에 앉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한사람의 주장만을 듣고, 약간의 돈을 보내는 댓가로 멋진 회답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이 종교적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일축한다.

◇에드·멕카티어가 이끄는 릴리저스·라운드 테이블교인들에게, 캠페인 스피치를 하고있는 당시의 대통령후보자 레건.

人氣폭등하는 잘생긴 선교사들의 TV 說教
제각기 時間갖고 年數千萬弗씩 헌금 거둬
『牧師자격도 없는 싸구려 宗教』 비난대두

그러나 부흥선교사들의 대변인들은 주류교회 목사들은 교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통파 종교단체인 릴리저스·라운드 테이블의 에드·맥가티어는 『주류교회의 지도자들은 신도들과의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

팔웰은 『주류교회의 중요한 실수는, 지난 30년동안 정통적 성경해석과 결별해온것』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교회의견에 관심에 있지않다. 그들은 신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라고 덧붙인다.

주류교회 목사들도 이들의 주장을 무조건 반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흥선교사들이 그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한편 역시 침례교회 목사인 제임스·던 목사는, 이 양대종교 산맥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주류교회는 교육을 떠맡은 반면, 부흥선교사들은 영적인 구원을 떠맡고 있읍니다』

주류교회목사들이 부흥선교사들을 비난하는 이유중의 또 하나는, 이들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있지 않다는것.

버그스트롬 목사는 『제리·팔웰등 많은 선교사들이 어떤 조직화된 교회와도 연관이 없읍니다. 그누구도 목사로서 정식임명을 받지않았지요. 반면 주류교회 목사들은 오랜 교육과정을 거쳤읍니다』라고 말한다.

대변인들은 바로 그러한 긴 교육과정이, 자신들이 채우고 있는 종교 공백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한다.

『주류교회 목사들은 쓸데없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피상한 아이디어를 얻고 결국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맥카티어는 말하며, 『대부분 미국인들의 심정은 하바드에 다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틀리다』고 강조한다.

맥카티어는 한때 콜게이트, 치약회사의 마케팅·맨이었던 사람.

그는 54년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의 전도사로서의 첫해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작년에 그는 대통령후보였던 레건을 자신의 교인들앞에서 연실하는 거회를 만들기도 했다.

내연의 처에 칼부림 교포
7년징역형 선고

〈LA- 지난5월 내연의처를 칼로찌른 혐의로 기소됐던 정령성(43세)씨가 23일 LA 지방법원(판사 윌리암·킨)에서 7년 징역형을 받았다.

페인터로 일하던 정씨는 지난 5월22일 그의 아파트에서 월남인 내연의 처와 말다툼 하던중 흥분, 칼을 휘두른 후 경찰에 자수 했었다.

검찰은 정씨를 살인및 폭행혐의로 구속했었으나 재판과정에서 살인혐의는 벗어났다.

한편 정씨는 법원에서 이의없음을 인정함으로써 최고형인 7년이 언도됐다.

한편 피해자인 월남인 내연의처는 사고이후 캘리포니아 병원에서 응급처치와 여러차례 접합수술을 받은 후 알려지지 않은 은신처로 피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⑥⑥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훈 옮김

드디어 오텍이 그의여윈 볼따귀와 배를 드러내면서 뒤어나온 갈비뼈를 그에게 보여주었답니다. 나는 눈에 드러누워 눈을감고 죽은사람처럼 흉내를 내서이카불루나(백인)가 캠프의 사정을 짐작할것 같아서말입니다. 그러나 그 상인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못하드군요. 그는 집속으로 들어가더니 여우털을 갖고나와 한손으로 처들고 다른손을 우리에게 벌리드군요. 그때 나는 앞이 캄캄해 오는데 우리가 이사람에게 팔아먹을 여우털이 있어야지요.

굶는 사람이 여우를 어떻게 잡겠어요. 여우털이없으니 캠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구할도리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우리가 여우털이 없다고하자 그백인은 갑자기 노발대발 하드군요. 나는 그 사람이우리가 왜 찾아왔는지 아마도 이해를 못하는줄로 알았지요. 우리는 몇번이고우리가 찾아온 목적을 보여줄려고 했고, 또 몇번이고 파카를 들춰서 뼈만 남아있는 우리몸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되었는지그는 이해를 전혀못하드군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상인이 우리가그렇게 열심히 말할려고 한 것을 못알아들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식량을 충분히 갖고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등을 돌린단 말입니까. 우리들은 이 사람이 식량이 풍족하다는 것이 그의개들이 살이쪘고 잘 먹여졌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 만일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것을 못알아들었다손 치더라도 개밥이라도 주었으면 얼마나 기뻐했겠 읍니까. 아마 그는 우리셋이 무서웠을지도 모르지요. 더우기 오텍은 미키의총을 갖고있었으니 까요. 그는 집으로 다시들어가서 다시 나올때는 바른손에 사슴잡는 총을들고왼손에는 밀가루가든 자루를 하나 갖고나왔는데 너무나작아서 어린애도 들수있을 것 같았읍니다. 그는 그밀가루를 우리에게 내 던지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는 다시 내다보지도 않았읍니다.

나는 그때 미키의총을빼앗아 이사람을 쏘아죽이고 그 조그만 집에 있는 우리가 필요한것을 모두 가지고 갈까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더군요. 그러나 지금쯤은 죽어서 숨이나 쉬는지 모르는 아들 엘라이투트나생각이 났어요. 그생각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읍니다.

우리셋은 돌아서서 우리들의손에 목숨이 달려있는 뒤에 남기고온 사람들이있는 서쪽으로 되돌아 왔읍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그 밀가루에는 아무도 손을대지 않았고, 지칠대로지친 우리들은 나흘이 되어서 캠프로 돌아왔는데 난 마지막에는 기어서 억지로 불이피워져있는곳까지 왔읍니다.

나의아버지 엘라이투트나는 이미 죽어 있었지요. 그는 움막의 문에 조용히 기대앉아 있었지만 마지막 숨이 넘어갈때 눈을감고뻗어 있는채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읍니다. 나는 나눅이 죽은사람을 먹자고 할까봐 근심이 되었지만 너무나 쇠약해져서 말도하지 못했고, 나의 아버지의 시체는 있던자리에 그대로있었읍니다.

우리가 백인한테서 얻어온 밀가루는 캠프에있는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단한끼 먹기에 족했읍니다.

여러사람은 생밀가루를 먹지 못했으나 상관할바가 아니었어요. 이 밀가루로 죽음의 귀신을 다만 하루정도 더 쫓아 보낼수있을 다름 이었으니까요.

오울릭툭의 텐트에는 그의부인이 죽은아이를 그냥 젖꼭지를 물리고 있었지요. 아이의 이름은 옥틸로흑이었어요. 오울릭툭은 부인에게서 아이를 떼어낼수가 없어서 텐트에 함께데리고 있었읍니다.

역사·오텍과 하우믹의텐트에도 마찬가지 였지요.

한애는 다 찢어진 사슴가죽위에 죽은시체로 나자빠져 있고, 다른애는 뱃속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요.

그다음은 내차례입니다만 나도 한녀석이 죽어버렸지요.

엘라이투트나는 내가불러도 깨지 않았고, 그의조그만 손은 얼어서 얼음보다 더 차가웠지요. 다음내 아내의 전 남편의 아들인 알주트는 아주 죽어버렸읍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울음도 없었고 여인들도 죽은 아이들 을 슬퍼하지않았읍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죽음이란 아무의미도 없었읍니다. 그때는 참으로 말로형용할수 없을정도로 비참했고, 더이상 기억하고 싶지않아요.

(계속)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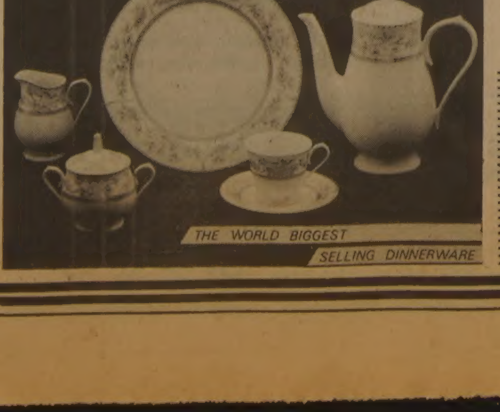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양식기 가을대방출
(CONTEMPORARY FALL SALE)

지난번에 오셨다가 물건이 매진되어 그냥 가신분 봄 가격과 같은 값으로 다시 모시겠읍니다.

- 선정된 고급 15개 품목 반액으로 팝니다.
- 기타 모든 Noritake China Set정가의 25%~35% 감한가격으로 팔겠읍니다.
- 새로 일본에서 직수입한 대형접시와 만두, 비빔밥, 냉면등으로 쓰시기 좋은 그릇과 찐그릇 정가의 약 ½가격(75% OFF)으로 재고가 떨어질때까지 방매 하겠읍니다.



THE WORLD BIGGEST SELLING DINNERWARE

특가기간 : 9월21일부터 물건이 떨어질때까지
상점소재지 : 4841 Yonge st.
(yonge과 sheppard의 sheppard center내)
전화번호 : 221-5990 MRS. 고

AMIK CRAFT SHOP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주3일
☎ : 244-5248, MRS. THOMAIDIS

애기 봐주실분 구함 :
돈밀과 에그린톤지역
☎ : 425-6068

MICHI(미찌) 일본식당
요리사 또는 부엌일 하실분 급구 합니다.
CALL : 매니저 · 924-7501
주소 : 459 CHURCH STREET

풀타임 카운터 헬퍼구함
EATON CENTER내
☎ : 979-9283

공장에서 일하실 경험 있는 분 구함 :
전기 어셈블리, 전기 택크니션, 플라스틱 몰딩기계 어프레이터 직접와서 문의 바람.
DORCHESTER ELECTRONIC
40 FINA CRES. (Corner & Browns Line)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1명
626, 628 BLOOR ST. W

그로서리 가게 :
파타임 일할분 구합니다.
☎ : 425-2905(돈밀×에그린톤 지역)

입주하셔서 애기와 살림해 주실분 구합니다.
☎ : 244-7303, 663-1053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타 원

포장 일하실 여자구함 :
시간당 $3.50, WESTEND LOCATION
(키플링×HORNOR)
직접신청 또는 252-1258 전화요망
MR. HUGHES

경험있는 풀타임 헬퍼 구합니다 :
미시사가 지역
☎ : 822-4895(B), 823-2445(R)

함께 일할 분을 찾습니다 :
월~금(아침9시~6시30분 저녁)
스타트 페이 $6.50
3개월 후부터 $7.
드라이빙 면허가 있어야 함.
연락처 : 624-0511(아침 9시~저녁6시30분 연락바람)

도나스 가게 풀타임 또는 파타임 헬퍼 구함
☎ : 881-2019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77-1110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 두채의 아파트 매매 : 좋은수입과 두개의 휴식처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기회
☎ : 763-6287

버라이어티 급매 : 가게 처음하시는 분에게 호 조건임
ASKING : $10,000+스탁(물개지가능)
2727 LAKESHORE BLVD. W.

세 탁 소 급 매
☎ : 653-6336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 535-2804 미세스 김

매 매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몬트리올에 있는 가게 매매
성업중인 그로서리 점포및 건물
위 치 : 6951 SHERBROOKE W. MONTREAL
주 매 상 : 7,000달러 이상
건물물게지 : 13½%(85년 7월까지)
전 화 : (B) 481-8131, (R) 481-3893

밤11시 이후 호텔에서 청소하실분 구함
오후2시 이후 연락바람
☎ : 425-1836 MR. 정

절 호 의 찬 스
좋은 비지네스를 원하십니까. 카페테리아식 고급 레스토랑으로 낭만적 분위기이며 좋은 비지네스 입니다. 미시사가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매상 4천달러이며 매상은 급상중. 년간 8만달러 수입. 주 5½DAY OPEN
☎ : 270-0679

급 매
타사업 관계로 급히 매도코자 함. 관심있는 분의 직접 내방바람.
357 COXWELL AVE. TOR. ONT.

FOR SALE
TRIPLEX집 : PRIVATE SALE(로얄욕×레이크 · 서) 교통 아주편리(서브웨이), 액설런트 콘디숀(Hot water heating by gas), 방11개, Moving out of city.좋은 모게지 가능. MR. ORVAL HANNA
☎ : 247-7161(B), 259-9913(R)

FISH & CHIP매매
적은 자본으로 사업체를 찾고 계신분에게 적격, 모든 경비공제후 연 순수익 30,000달러이상, 주49시간 영업 일주에 필요한 인원은 1½사람,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람.
☎ : 633-6281 2865 JANE ST.

전화 후렌치 스토아 매매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걸쳐있는 전화 후렌치 스토아에 흥미가지신분 구함.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음. 투자액 35,000~60,000달러 (모든경비 포함) MR. MONK
☎ : 445-7974 1875 Leslie Ave. unit 18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 530-0748 DAVID

코너 스토아(우체국포함)매매 :
아스킹 15,000+스탁(영×써머 · 힐)
1272 YONGE ST. MR. INGHAM

BASKIN ROBBINS아이스크림 스토아를 매매코자 함.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방문및 전화는 매일 12시 이후에 하시기 바람)
360 GEORGE ST. NORTH PETERBOROUGH
☎ : 705-743-3152 MR. 유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
① 주매상 5500달러(프라자안에 있음)
② 주매상 3300달러(아파트 포함)
THE PERMANENT R. E.
☎ : 481-3443, 745-5483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췌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가나안 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 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구 혼

재색과 학력 겸비한 29세 미혼여성 중매
유럽에서 고교와 대학졸업, 현재 간호학과 졸업반 (이민자녀)
30~45세 사이의 학력있는 분의 연락바람
연락처 : T. CHOI 1355 SO. HOPE ST. #311
L. A., CA. 90015 U. S. A.

집 · 방세 · 하숙

집세 놓습니다. 교통편리 : 던다스(영 & 처치)
1 &2 베드룸 With Patio deck, 즉시 입주가능, 냉장고, 스토브 설치되 있음. ☎ : 444-1322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 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히

킴스 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용실 미세스 ·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이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3063 MR. 오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약 건재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 · 신경과 · 부인과 · 침구과 · 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 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에어콘 · 히팅 · 냉장고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니 리 운 수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기 타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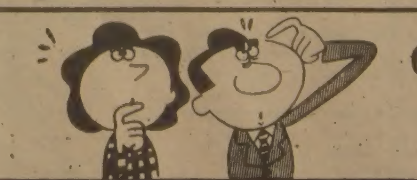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 · 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SOMÉ JEWELLERY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225-4641쏘메쎄리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국일보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 : 533-2361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한국의 恋人들

燕山主의 魅力 <1>

연산주(燕山主)는 폭군인가. 그렇다. 그는 한국역사상 첫째로 꼽히는 폭군이자, 로마의 폭군 네로와 자웅을 겨룰만큼 세계적인 폭군이다. 그렇다고해서 연산은 <폭군>이라는 한마디로 난도질해댈 인물은 아니다. 그는 다정다감하며 뛰어난 지혜를 지녔고 커다란 꿈을 품었던 사나이로 그것을 어느 정도 성취한 멋장이다.

無作金의 고독과 恨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연산은 자신이 시인으로 행세하여 많은 시를 지었고 음악을 애호하였으며 춤을 즐겼고 무예(武藝)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여성에 대하여 뛰어난 본석력을 지녔는가 하면 명군(名君)으로 일컬어지는 아버지 성종을 능가하려 했으며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중국의 황제이상으로 군림하고 싶어했다. 또한 어머니 윤비에 대하여는 피눈물을 쏟을 정도로 효심이 지극했고 대비들에게도 효성을 다했다. 어정이 많아 종친과 신하들에게 관대했고 궁녀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 뿐만이 아니다. 연산은 즉위하자마자 녹도(鹿島·완도)에 침공한 왜구를 격퇴하고 건주야인(建州野人)들을 회유 또는 토벌하는등 국방에 주력하였다.

또 사창(社倉)·상평창(常平倉)·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하여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였으며, 선비들에게는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부활했고 경상우도지도(慶尙右道地圖)·국조보감(國朝寶鑑)·동국명가집(東國名歌集)을 간행했다. 그리고 속국조보감(續國朝寶鑑)·역대제왕시문잡저(歷代帝王詩文雜著)·여지승람(輿地勝覽)을 완성하는등 문무(文武)의 중흥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이 과오의 그늘에 가려버리고, 선왕(先王)의 후궁을 간음한 패륜아, 종친이랑 팔도의 미녀를 간택하여 농락한 탕아, 무오사화·갑자사화등 피비린내나는 숙청극을 연출한 무뢰배, 선비를 박해하여 사냥의 몰이꾼으로나 부리면서 성균관을 유흥장으로 삼고, 궁을 광대의 공연장화시켰으며, 뇌물을 좋아하여 관리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치·낭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을 도탄에 몰아 넣었고, 왕의 체면만 중시하여 궁이 바라보이는 민가를 모두 철거하는등 횡포를 자행한 폭군으로만 그를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된 이유는 좌와 우를 확연하게 가르는 흑백논리(黑白論理), 즉 인텔리겐차의 비판의식이 가세된 탓이 큰데다가, 몇몇 사람이 편견을 지닌 눈으로 연산을 미치광이나 정신병자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산은 천재이며, 우리나라 역사상 걸출한 임금이란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단지 연산을 사실(史實)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평가하자는것이다. 보기에 따라서 연산은 다정다감하기 짝이 없는 연인, 호쾌한 사나이, 매력이 충만한 남자로도 인식되기 때문이다.

연산은 성종(成宗·朝鮮九代王 1457~1494)의 맏아들로 1476년에 태어났다. 이때 성종은 나이 스무살이었으며 수렴청정하던 정희대비(貞熹大妃)로부터 정권을 인수하여 친정(親政)할 무렵이었다. 그런데 성종은 이미 1467년에 한살 위인 한명회의 딸과 가례를 거행하였으나 왕비가 1474년에 죽자 숙의(淑儀)이던 윤씨를 사랑하여 무작금(無作金·연산의 兒名)을 얻었다. 그러나 어머니인 윤비(尹妃)가 무작금이 4살되던 1480년10월에 폐출되어 사사(賜死)됨으로써 고아가 된다. 7살 때 세자로 책봉됨으로써 지위가 견고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못했다. 성종이 윤비를 워낙 미워했던데다가 무작금에게 폐비 윤씨사건을 절대 발설하지 않도록 엄명했던터라 누구도 연산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따라서 정을 베풀지 않았다. 세자는 다음 왕위를 이을 제2인자이므로 으레 다투어 아첨하기 마련이건만 그에게는 아첨하는 사람커녕 한치의 여유도 없이 채찍질 하는 스승뿐이었다. (연산은 말이 많은 대신, 시류(時流)에 편승하여 소위 인기발언을 일삼는 선비, 융통성이 없는 관리를 혐오하였는데 아마도 성장과정에서 받은 스승의 인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7살때 世子로 책봉됐으나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랐고 아버지인 成宗마저 딴王子편애…情모르는 孤兒로 成長

그러니 융(㦕·연산의 本名)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어머니가 왜없으며, 정이 무엇인지 모른채 고아로서 자랄수 밖에 없었다. 그에게 주어진 일과는 강론(講論)의 반복이었고, 까다로운 궁중 법도가 그를 짓눌렀다. 더우기 아버지 성종은 아들에게 자상하지 않았다. 성종은 사헌부(司憲府)에서 보다못해 상소할 정도로 한 왕자를 편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산은 쓸쓸할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연산을 더욱 고독한 사나이로 만든 것은 이보다도 성종 주변에 그득한 여인들과 여러 형제들이었다.

성종은 서른 여덟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으면서도 아들 열 여섯과 딸 열 둘을 두었을만큼 많은 여인을 포옹했었다. 1474년에 죽은 첫째 왕비공혜왕후(恭惠王后), 연산의 생모인 폐비윤씨, 계비(繼妃) 정현왕후(貞顯王后)외에도 자녀를 낳은 후궁만 아홉명이나 되었다.

즉 둘째 아들 계성군을 낳은 숙의 하씨, 세째아들 안양군과 여섯째 아들 봉안군, 열째딸 정혜옹주를 낳은 귀인정씨, 네째 아들 완원군과 다섯째 아들 회산군, 일곱째아들 신성군, 여덟째 익양군, 열째 경명군, 열네째 운천군, 열다섯째 양원군, 여섯째 딸 정순옹주, 열한번째 딸 정숙옹주의 어머니인 숙의 홍씨, 그리고 아홉째 아들 화성군, 열세째 영산군, 네째 딸 경순옹주, 일곱째 숙혜 옹주를 낳은 숙용 심씨, 열한번째 아들 전성군을 낳은 귀인권씨, 열두째 아들 무산군을 낳은 명빈 김씨, 둘째 딸 휘숙 옹주, 다섯째 경숙옹주, 아홉째 휘정옹주등 딸만 셋 낳은 숙의 김씨, 세째 딸 공신옹주 외동딸을 둔 귀인 엄씨와 역시 여덟째 경휘옹주 외동 딸만 둔 숙용 권씨등이 있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나이 어린 무작금이 애정도 느끼지 못하면서 따가운 눈총만 받으면서 시샘을 의식하면서 고독을 벗삼아 성장했다는 이야기이다. 오직 기대하는 대상은 아버지 성종뿐. 그러나 성종은 냉랭 했다. 그러므로 왕이 되자 무작금은 성종을 모방하면서도 증오하는 두 얼굴을 지니게 된다.

이것을 보면 연산이 왜 더러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러고보면 모래벌판에서 고독하게 성장한 연산왕에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낙제감인 성종을 비판해야 한다. 또한 연산의 경우를 보고 어린시절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

어린 시절을 고독하게 보낸 연산, 애정이 무엇인지 몰랐던 연산, 그는 마치 사막을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자 물을 마구 퍼마신 사람처럼, 성인이 되고 최고통치자가 되자마자 인정을 쭈리면서 또한 그것을 갈구했다. 그러한 실례를 보모우대에서 볼수있다. 연산은 자신을 키워준 봉보부인(奉保夫人·乳母로서 從一品)에게 특전을 베풀었다. 즉 유모의 죽은 남편에게 추자(追資)하고, 봉보부인의 친척인 노비 62명을 양인(良人)으로 만들어주고 신역(身役)까지 면제하였다. 왕위에 오른 2년뒤인 1496년 3월의 일이었다. 그러나 연산의 인정조치에 반발, 승지와 의정부에서는 반론을 폈다. 이에 연산은 단종·예종·성종때도 봉보부인에게 특혜를 베푼 예를 들면서 『젖이 없으면 자라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면 대를 잇지 못하는데, 대를 잇지 못하면 종묘사직이 보전될수 있는가?』고 달랬다.

홍문관 직제학·대간·좌의정·우찬성·우참찬등은 계속해서 반대했다. 그러자 연산은 『사람이 비록 형체를 하늘로부터 받았지만 보양(保養)의 공이 없었다면 장성하지 못하는 것이니 유모의 공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있을 수 있겠는가』고 보은을 결심했다.

그러나 연산은 거듭된 반대여론에 굴복하여 「기른 정에 대한 보은」을 취소했다. 즉 봉보부인에게 내린 직첩을 거두고 녹봉 지급도 중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유모 최씨가 1497년 2월 그믐날 죽자 3일간 조회를 정지하고 성종의 유모 백씨와 동일하게 부의와 제례를 거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인정을 보이며 사나이로서 의리를 지켰다.

구성군(龜城君) 준(浚)은 무예에 뛰어난 왕손(王孫)으로서 사도 병마도총사(四道兵馬都摠使)가 되어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병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올랐으며 세조의 총애를 입었다.

이것이 시기의 대상이 되어 성종이 즉위하던 해에 찬탈을 꾀한 정승들이 구성군을 귀양보내자고 전의했다. 그는 결국 영해(寧海)로 유배되었다가 성종 즉위 10년째인 1479년 그곳에서 죽었다. 말하자면 성종은 경쟁한 종실(宗室)을 두려워하여 자인한 숙청을 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연산은 친동생은 물론 종실·종친들에게 더할 나위없이 관대했다.

연산의 둘째 아우인 계성군(桂城君·恂: 淑儀 河氏 所生)이 아무런 이유없이 취학(就學)을 하지 않자 직장(直長) 이분(李奔)이 찾아가서 까닭을 물었는데 계성군이 예를 갖추지 않은채 신발만 신고 거만스럽게 맞이하였다 하여 말썽이 일어났다. 이때 마땅히 연산은 계성군을 불러 문책해야 했는데도 대신 사람을 보냈다.

계성군은 이번에도 예를 갖추지 않고, 왕이 보낸 관리마저 소홀히 맞아, 불공죄로 문책해야 한다고 승지가 아뢰었다.

연산왕은 『내가 따로 불러 물어보겠다』면서 유야무야해 버렸다. 계성군은 취하지 않은 죄, 직장(直長)을 소홀히 맞은 죄, 더우기 왕의 사절마저 무시한 죄로 중벌을 받아야 마땅했으나 형제간의 우애가 두터운 연산은 관용을 베푼것이다.

또 종친(宗親)인 수성부정(水城副正)의 아내인 장씨(張氏)가 두 머슴과 간통한 옥사(獄事)가 일어났을 때도 연산은 넌지시 재혼케하여 「간통하는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논하지 말라」는 법조문을 들어 이 역시 유야무야시켰다.

당시 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자를 사형시키거나 여종으로 신분을 격하시켜 귀양 보내고 종친내는 더욱 엄벌로 다스려야했다. 그러나 연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을 흐지부지해 버린 것이다.

장씨가 간음했는지의 사실여부는 그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지만 솔로몬의 명재판이 장인 연산왕의 슬기와 너그러운 인간상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뿐아니라 연산왕은 종친들에게 후한 인정을 베풀어 월산대군(月山大君·成宗의 兄)의 아내 박씨에게 여러 차례 하사품을 내렸는데 1500년 8월11일에 쌀 50섬, 콩 30섬, 옷감(綿布·正布各150필)과 후추 1섬을 주었으며 월산대군의 세자인 덕풍군(德豊君·㥠)에게 쌀과 팥 50섬, 면화 60근을 주었고 종친들에게 너무 많은 보너스를 준다는 정승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우 진성대군(晋城大君·成宗의 둘째 아들: 훗날 中宗)에게 곡식을 7천석이나 주기도 했다.

당시 사관(史官)들이나 후세 역사가들은 연산왕이 원칙을 무시한 인사를 자행했으며 절제를 잃고 낭비와 사치를 일삼아 국고를 탕진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연산왕은 종친들에게만 인정을 베푼 것이 아니다.

아픈 신하를 보살피고 골고루 인정을 나누었다.

1500년 6월에 병조판서 이계동(李季同)이 병으로 사직하자, 휴가를주고 약을 내려 주었는가 하면, 10월에는 마유포도(馬乳葡萄) 한가지를 승전원에 내리면서 고루 맛보도록 하였다. 이것을 받은 승지들은 『이전에 맛보지 못하던 것입니다. 비록 산중에 더러 있기는 하였으나 서리와 눈을 맞은 포도이니 어찌 그 맛이 같겠읍디까?』고 감격하였다. 그러나 연산의 이러한 온정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선생을 신성하게 여긴 나머지 선생은 세사도 하지 않으며 대·소변도 가리지 않는 양 여기는 소아병적인 사고(思考)로 연산을 조명했기 때문이다. 악인은 악인, 선인은 선인이라는 극단적인 판단이 지금도 우리네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편견과 오해의 불씨인 것이다.

오해와 편견의 굴레를 벗고 연산을 보면 여러가지 매력이 돋보이는데 그중의 하나가 넘치는 인정과 의리다.

그는 고독한 어린시절을 보낸 쓰라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음으로써 대상욕구(代償欲求)를 충족시켰던 것같다.

너와 내가 아낀 연료
기업 튼튼 나라 튼튼

개 업 인 사

이 영 두

이 건 학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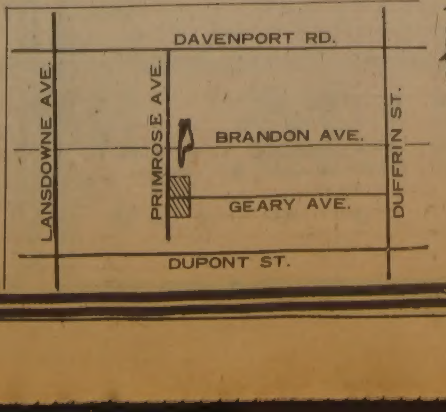
금번 저희 형제가 오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아래 장소에 최신시설과 장비를 갖춘 AUTO BODY SHOP을 개업하여 교민 여러분께 성심성의껏 봉사코자 하오니 따스한 애호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을 모시고 간단한 개업 자축연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 영 두, 이 건 학 배

개 업 일: 1981년 10월 7일 하오7시
장 소: LISBON AUTO BODY INC
35 PRIMROSE AVE. TORONTO, ONT.
전 화: (B) 533-8507, 533-8508
(R) 439-6548, 266-8925

LISBON AUTO BODY INC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가을國展 入賞作발표

大賞 5점

- 동양화 非具象 吳淑煥작「休 息」
- 서양화 具象 申養燮작「土着別曲」
- 서양화 非具象 朴在鎬작「四邊의詩」
- 조각 具象 高正守작「姉 妹 Ⅱ」
- 조각 非具象 全國光작「매스의碑」

동양화 具象부문에서 대상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제30회 가을국전의 입선작과 수상작이 발표됐다.

21일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가진 국전수상작발표에서 영예의 대상은 ▲동양화 비구상에서 吳淑煥씨(29·여)의 「休息」이 ▲서양화 구상에서 申養燮씨(38)의 「土着別曲」이 ▲서양화 비구상에서 朴在鎬씨(41)의 「四邊의 詩」가 ▲조각구상에서 高正守씨(33)의 「姉妹Ⅱ」가 ▲조각 비구상에서 全國光씨(35)의 「매스의 碑」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초대작가상은 조각비구상부문의 崔起源교수(46·弘大)가 「誕生 1981-30」으로, 추천작가상은 동양화 비구상의 金元世씨(42·梨大강사)가 각각 차지했다.

국전을 주관하고있는 문예진흥원측은 이번 국전의 일반응모작품은 구상부문에서 동양화 5백1점, 서양화 5백24점, 조각 72점이고 비구상부문에서는 동양화 90점, 서양화 2백51점, 조각 61점으로 총 1천4백99점(작년 1천3백69점)이며 이중 입선작(특선및 수상작포함)은 구상부문에서 동양화 62점, 서양화 90점, 조각 39점이고 비구상부문에서도 동양화 25점, 서양화 50점, 조각 37점으로 총 3백1점이라고 밝혔다.

금년 가을국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문공부장관상이 없이 부문별로 대상을 주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로 인해 자격미달의 대상작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심했으며 동양화비구상부문에서 대상작을 내지않은것도 이런의지의 표현이라고 심사위원단은 말하고 있다.

금년 가을국전은 10월2일 상오11시에 개막, 10월3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내)에서 계속되며 일반인의 관람은 10월2일 하오2시부터 시작된다.

작품접수및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상▲동양화=총5백1점중 입선52, 특선10점 ▲서양화=총5백24점중 입선80, 특선9, 대상1점 ▲조각=총72점중 입선33, 특선3, 대상1점 ◇비구상▲동양화=총90점중 입선21, 특선3, 대상1점 ▲서양화=총2백51점중 입선43, 특선6, 대상1점 ▲조각=총61점중 입선33, 특선3, 대상1점

심사평

量的팽창속 具象 大賞못내 서운 東洋畵
水準향상 젊은세대 進出 돋보여 西洋畵
타성·類似性버리고 個性 찾아야 조 각

제30회 가을국전의 金源 심사위원장은 『국전이 30년동안 계속돼오면서 질과 양에서 많이 발전했으며, 특히 금년은 출품작이 1천5백점이나되고 표현양식도 다양해졌으나 이렇다할 걸작품을 볼수없는것이 유감이다』고 심사소감을 말했다.

金위원장은 『특히 대형미술관을 확보하지못해 국전을 원만히 치르지못하는 현상은 시급히 탈피해야할 것』이라고말하고 『조각의 경우 외부공간을 이용하여 대작의 출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회화는 입선가능한 작품을 전시공간 때문에 낙선시켜야했다』며 아쉬워했다.

각부문별 심사평(분과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千鏡子씨(동양화구상) 양적으로는 늘어 났지만 마음을 끌어주는작품이 없었다. 마음을 끄는 작품은 낙선작중에 있었지만 기법이 유치했고 기법이 익숙

▲崔德休씨(서양화구상) 출품수도 많았고 작품에 임하는 태도도 의욕적이고 진지했다. 그러나 인물화에서 生動感이 부족한것, 풍경화에서 지나친 근경화로 인한 형식화등 부분적인 미숙을 시정해야 할것이다.

▲裵亨植씨(조각구상) 작가로서의 개성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창의적으로 표현해야 할것이며 안일한 타성과 유사성을 배제해야할것이다.

▲李奎鮮씨(동양화 비구상) 예년에비해 출품수도많고 작품수준도향상됐다. 紙·墨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우리회화의 정신과 내용을 잃지않고 새로운 우리것을 創出하려는 노력이 짙은 작품이 많았고, 심사도 이런작품에 중점을 두었다.

▲丁昌燮씨(서양화 비구상) 표현내용이나방법이 예년에비해 다양하고 수준도 조금 향상됐다.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모색을 하기위해 발돋움하고 있는것이 눈에띄었다. 이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재료의 탐색이나 개념의 신선함은 한국현대미술의 앞날을 밝게 해주는 것이었다.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장=金源 부위원장=林完圭

▲동양화 구상=千鏡子(위원장) 金明濟、李衡燮、金興鍾 ▲서양화 구상=崔德休(위원장) 趙炳惠、金源、李義柱、黃瑜燁、金興洙、朴沈眞、姜大廷、朴古石 ▲조각구상=裵亨植(위원장) 姜泰成、金水鉉、白文基、閔福鎭 ▲동양화비구상=李奎鮮(위원장) 宋榮邦、金榮華、朴石元、崔秉尚 ▲서양화 비구상=丁昌燮(위원장) 林完圭、金炯大、鄭文鉉、李承祚、鄭点植、河東哲 ▲조각 비구상=金燦植(위원장) 韓仁成、嚴泰丁、沈敬子、李寧秀

特選·入選者명단

特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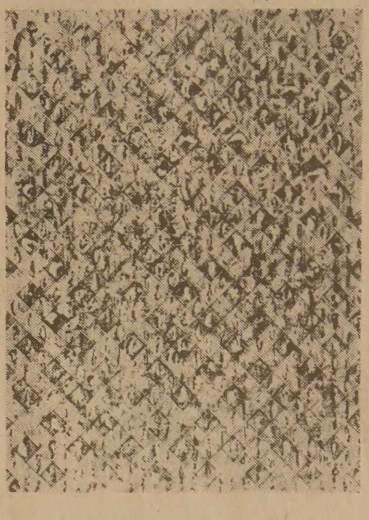
◇具象 東洋畵 [illegible] 西洋畵 [illegible] 彫刻 [illegible]

◇非具象(Ⅱ) 東洋畵 [illegible] 西洋畵 [illegible] 彫刻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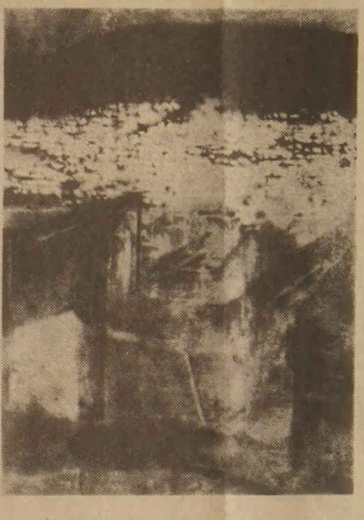
入選

◇具象 東洋畵 [illegible] 西洋畵 [illegible] 彫刻 [illegible]

◇非具象 東洋畵 [illegible] 西洋畵 [illegible] 彫刻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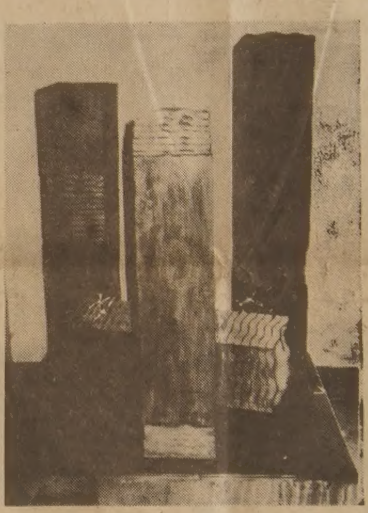


◇西洋畵비구상부문 대상수상작 「四邊의 詩」(朴在鎬작)



◇東洋畵비구상부문 대상수상작 「休息」(吳淑煥작)

◇彫刻 구상부문 대상 수상작 「姉妹Ⅱ」(高正守작)



◇彫刻 비구상부문 대상수상작 「매스의 碑」(全國光작)

大賞의 얼굴

◇吳淑煥씨 <동양화非具象>

동양화비구상부문의 大賞은 주부작가 吳淑煥씨(29)가 차지, 제30회 國展의 大賞작가중 유일한 紅一點 기록을 세웠다.

休息의 의미를 東洋的餘裕로 설명

『정말로 너무나 놀랐기때문에 어리둥절할따름입니다. 이영광을 저에게 안겨주신 심사위원여러분에게 우선 감사할따름입니다』

수상소감을 「놀라움」으로 밝히는 그는 작품 「休息」이 갖는 의미를 西歐문명에서 찾을수없는 동양적인 「餘裕」라고 설명한다.

吳씨는 「休息」에서는 형체보다 빛에대한 감각을 높이려고했다고 강조한다. 그는 大賞의 기쁨을 현재 미국에 가있는남편 (박재근·30·IBM社근무)에게가장먼저전하고싶다면서우리것의창조에일층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 梨花女大·同대학원출신으로 서울西大門區 弘濟洞19의1에 이제 한돌짜리 아들을 두고있다.

◇申養燮씨 <서양화具象>

서양화구상부문에서 大賞을 차지한 申養燮씨(38)의 작품 「土着別曲」을 보고있노라면 지금은 잊혀진 옛고향이 절로 생각키운다.

잊혀진 故鄕…어린이 통해 일깨워

초가 앞마당에서 한가롭게 놀고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土着別曲」은 흙에대한 사랑, 자연에의 回歸를 표현한작품.

申씨는 『大地는 인간의 영원한고향』이라고 강조하면서 각박한 현대생활속에서 잊혀진 고향을 어린이들을 통해 일깨우려고 시도해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지방작가임을 전제, 우리의 畵壇활동이 너무나 서울중심적이라고 말하고 畵壇활동이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 지방작가들에게도 기회가확대되어 인센티브(誘因策)를 주어야할것이라고 강조하기도했다. 天安市 院城洞289의37에 부인金一心씨(36)와 2남을 두고있다.

◇朴在鎬씨 <서양화非具象>

서양화 비구상부문의 大賞작가 朴在鎬씨(41)는 國展에의 刻苦20년만에 大賞을 수상한 집념의 작가.

執念…刻苦 20년만에 榮光을 안아

『이렇게 때늦은 수상이라 소감이 있겠읍니까만, 어떻든 기쁘긴 기쁩니다』

작품 「四邊의 詩」는 조형언어를 詩的으로 써내려 가듯이 표현해보려고 했읍니다』

그는 「四邊의 詩」가 圓形이 아니고 4각형으로 표현된데대해 圓보다는 角이 더 볼륨이 큰탓에 角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朴씨는 서울美大출신으로 현 同德여대 생활미술과과장으로재직중. 그는이번추천작가가된것을계기로파리로건너가본격적인그림수업을계획하고있다고 밝히면서『오히려 大賞수상이 마음의 큰부담이 되고있다』고 말한다. 서울江南區 淸潭洞160의1에 부인 許桂씨(37)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있다. 부인 許桂씨는 서양화가로서 여류 畵壇의 중진.

◇高正守씨 <조각具象>

「姉妹Ⅱ」로 조각 구상부문 大賞을 차지한 高正守씨(35·光州市西區花亭洞삼익맨션1동902)는 지난79년에도 「姉妹Ⅰ」으로 문공장관상을 수상했던 작가. 오래전부터 「자매」를 시리즈주제로 조각하고 있는 高正守씨는 이작품에서 두여성의 人體의 볼륨을 극대화하고, 그볼륨을 더욱 생생하게 살려내기 위해 나란히 뛰어가는 포즈를 선택했다. 銅을 밝고 따뜻한 색깔로 화학처리해 자매의 다정다감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姉妹의 多情多感한 분위기를 살려

심사위원들은 『작품의 전체 형태가 둥글고 풍부한 球의 형태를 연상시키며, 人體의 둥근 형태에서 에너지가 密集된 球의 힘차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평한다. 高正守씨는 이작품을 3개월동안 제작했으며, 지난번 문공장관상을 수상했던 靜的인포즈의 「姉妹Ⅰ」과는 극히 대조적인 작품으로 평해진다. 그는 지금까지 입선11회, 특선4회를했는데 이번에추천작가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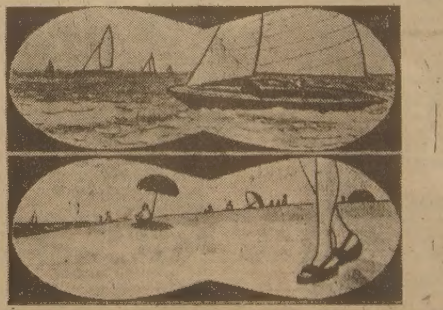
◇全國光씨 <조각非具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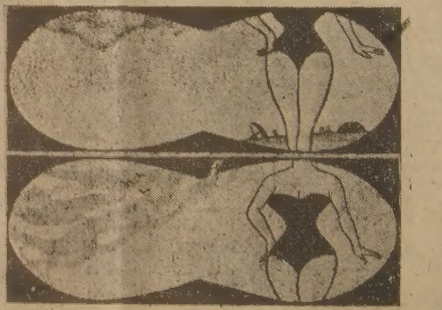
조각 비구상 수상작품인 全國光씨(36·서울道峰區水踰2동555의23)의 「매스의碑」는 덩어리(塊)들이 각각의 자리에 놓여 이루는 空間의 관계를 탐색해본 작품. 全씨는『매스(덩어리)를 極小化시켜서 미니멈(極少分子)의 상태로 축소시키면 4角의 형태로 만들어질 것같아 물체의 原型으로 4개의 긴4각형체를 제작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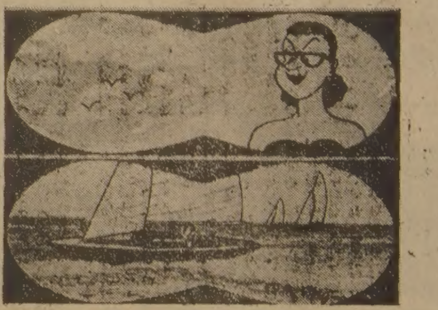
銅과 木材사용 力動的느낌 印象的

작품의 소재를 銅과 木材 두가지를 사용, 質感이 서로 다른것이 서로 만나 부딪치는 力動的인 느낌이 印象的이다. 그는 대학을 다닐 때는 具象을 했으나 『具象에서는 마음으로 찾고 싶은 것을 나타낼수가 없어 비구상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國展에는 8회 출품해서 4회 특선했으며, 이번 국전에는 역시 여류조각가인 부인梁和鉉씨도 함께 출품했다. 弘大미대와 대학원졸업. 2녀를 두고 있다.

해외 걸작 만화







인 사 말 씀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그동안 성업중이던 식당「서울집」을 인수, 10월5일부터 개업하며 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민 여러분을 위한 서비스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이 왕래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식당은 매주 특별요리를 푸짐하고 맛있는 대중음식을 대접코자 하오니 앞으로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신문지상을 통하여 개업인사 드림을 양해 바라오며, 여러분의 건강·행운을 빌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개 업 일 : 1981년 10월5일
식 당 명 : 서 울 집
전 화 : 532-0602
주 소 : 615-BLOOR ST. W.

.. 김 신 우 드림

〈공 고〉

한인의 날 기념식

금반 연방정부가 공포한 뜻깊은 한인의 날 경축일을 맞이하여 교민 여러분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기념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필히 참석하시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식후 친목을 위한 다과회를 갖고자 합니다.

일 시 : 1981년10월3일(토) 오전11시
장 소 : 한인회관
주 최 : 한 인 회

경 로 잔 치

금반 한인회에서는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경로회를 갖고자 하오며, 여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여 드리기 위해 화려한 밴드와 다채로운 무용등, 순서를 마련하였으며 많은 경품및 상품을 준비하였으니 부디 오셔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0월17일(토) 오전11시
장 소 : 한인회관
주 최 : 한 인 회

토론토 한인회 회장
박 인 순 배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금주의 새 리스팅

도넛샵 :
①주매상 $3500, 6개월된 전망 밝은지역
렌트 : $3000, 10년+10년 옵션, $90000다운
가격 : $180,000
②월순수익 $9000보장, 운영이 간단하고 시간짧음
렌트 : $1,060, 8년+10년옵션, $140,000다운
가격 : $185,000

커피샵
①5일간 영업, 7시부터 5시반까지 오픈.
주매상 : $2,500, 렌트 : $1,225, 3년+3년옵션
가격 : $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①주매상 : $5,500, 렌트 : $750, 5년+3년
가격 : $50,000
②주매상 : $6,700, 새로꾸민 전망 밝은가게 넓은 방갈로
(던다스와 Hwy427)교통이 편리하고 벽돌로 된 단층집, 3 베드룸, 파이어 플레이스 2개, 65×170, 뒷 마당크고 잘 단장된 큰 지하실 $65,000다운, 17% 2년간 물개지 잡아줌.
가격 : $164,900

101 DUNCAN MILL RD. SUIT404
DON MILLS, M3B 1Z3
(B) 449-8644, (H) 286-1548

世界의 特殊部隊

<제1회>

1976년 7월3일 밤,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감행된 이스라엘군에 의한 人質구출작전은 당사국의 意表를 찔러 실시되어 온 세계를 놀라게 했다。항공기의 납치에 의한 人質구출작전은 오늘날까지 서너 번 있었지만 이 작전만큼 극적으로 성공한 예는 없었던것 같다。습격부대에게도, 인질에게도 거의 피해는 없었다。이 기습공격으로 해서 이스라엘군의 단호한 태도로 테러행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對應이 제시됐다。엔테베의 殊勳은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하헤블레」에 의하여 세워졌는데, 그토록 大功을 세웠으면서도 그들이 이룬 갖가지 업적은 대부분 歷史의 그늘에 가려 밝혀지지 않은채 사장된다。이렇게 햇빛을 못보는 세계의 特殊部隊에 촛점을 맞추어 그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떤 활동을 벌였는가。세신을 놀라게 해준 世界 特殊部隊의 활약상을 연재한다。

엔테베 人質탈환作戰 ①

이스라엘 空挺部隊

텔아비브發 파리行 佛旅客機가 아테네서 離陸後 통신 끊겨

모사드가 探知해 各國機關에 협력 要請

■에어버스 139편

1976년6월27일, 일요일 아침이었다。승객 2백45명을 태운 프랑스항공(에어·프랑스)의 에어버스139편(英·佛·獨공동출자에 의한 에어버스·인더스트리社제조의A300B4型機)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이스라엘 최대의 도시 텔아비브의 벤·구리온공항에서 파리를 향해 출발했다。

이 비행기는 그리스의 아테네를 경유, 파리로 가게 되어 있었다。

에어·프랑스139편은 중계지 아테네에서 승객59명을 내려놓고 새로 56명을 태웠다。正午께 아테네공항을 이륙한 139편이 페로포비소스반도 상공에 이르렀으리라고 여겨질 무렵 비행기와 지상과의 소식은 끊겼다。

이때 그리스의 항공교통관계관은 통신두절에 별로 큰 뜻을 두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특수정보기관「모사드」는 전신두절(杜絶)을 재빨리 탐지하고 139편의 행방을 추적하려고 국외의 정보원들과 각국협력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이날, 이스라엘 정부는 정례(定例)각의를 열고 있었다。오후1시반께, 각의가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에 『오늘 아침9시 조금전 다수의 이스라엘인 승객을 태우고 벤·구리온공항을 출발한 에어버스139편이 추락 아니면 납치당한듯 합니다』라는 보고가 전달되었다。

보고의 내용이 담긴 메모용지가 야코비운수상으로부터 라빈수상에게 넘겨진것은 에어버스의 소식이 끊긴지 불과 수분뒤였다。

일찌기 이스라엘 육군의 참모총장을 역임한바있는 라빈수상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나이 젊은 야코비운수상에게 『납치당했다면 계속 정보를 수집하지않으면 안되지』하고 지시했다。

그러나 벤·구리온 공항으로부터의 보고는 『에어버스는 승객2백45명(그중 이스라엘국적승객은 83명), 승무원12명을 태워 9시께 이곳을 출발했다』는것 뿐이었다。

그뒤 각료들은 에어버스가 예정했던 파리가 아닌 南쪽으로 날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각의에서는 대책이 논의되었고 그후 3시반에는 라빈수상을 長으로 페레스국방상, 야코비 운수상, 아론外務相, 차독 法務相, 가릴리 무임소상등 각료5명과 굴 육군참모총장을 구성원으로하는 위기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라빈수상은 납치당한 비행기엔 1백명 가까운 유태인이 탑승해 있고 범인들은 그들 人質을 미끼로 이스라엘에 압력을 걸어 올것이라고 추측했다。

위기 대책위원회는 저녁때까지 몇 개의 정보를 수집했다。

■給油위해 벵가지 着陸

그 정보중의 하나는 에어버스가 이 사건의 제1기착지로 리비아의 벵가지에 도착했다는 것이며 또다른 하나는 납치범들의 지휘자가 팔레스티나의 과격파인 『팔레스티나 해방인민전선(PFLP)의 리더, 와디아·하다드(와산)라는 것이었다。

하다드는 확신적 국제게릴라 지도자로 그의 도당(徒黨)은 1972년 5월 벨기에의 사베나 항공의 제트기를 납치하여 벤·구리온공항에 착륙시킨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정비사 또는 비행기에의 식량운반원등으로 변장한 이스라엘특수부대 대원들은 비행기를 탈취, 게릴라 3명을 사살하고 승객 97명을 모두 구출했다。

납치범들은 72년때처럼 벤·구리온 공항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었다。

라빈首相을 長으로 즉각 危機對策委 설치

첫釋放된 姙産婦가 猶太승객 따로分離 提報

그래서 라빈수상은 공항으로 나가 이스라엘 국영 엘알항공의 총지배인실을 위기대책위원회의 전선사령부로 정하고 그곳에서 전반적 지휘를 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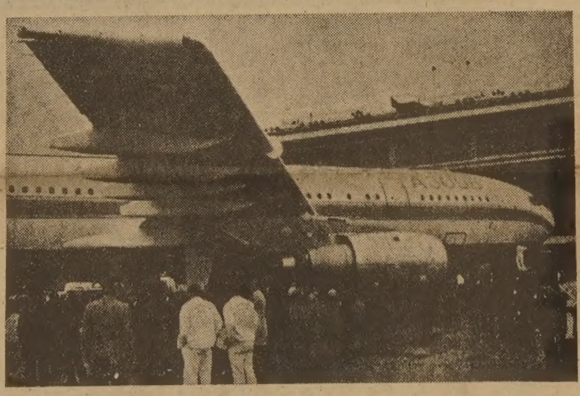
그리고 공항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 눈에 띄지 않게 白色 정비복 아니면 스포츠셔츠를 입은 특수부대 대원들을 배치했다。

공항의 전선사령부에 납치범에 관한 련락 정보가 들어왔다。정보는 임월(臨月)이라 조산(早産)할 우려가 있다고 범인을 설득함으로써 벵가지에서 석방되어 리비아항공기로 런던에 날아온 30세의 패트리셔·하이맨부인이 제공한 것으로 그녀가 런던 경시청(警視廳)의 담당관에게 비행기내에서의 일을 말한것을 영국의 정보당국이 이스라엘로 보내 준것이었다。

하이맨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139편이 아테네를 이륙한지 5분뒤 아테네에서 탑승한 독일인으로 보이는 남녀와 아랍인처럼 생긴 남자3명이 옷속에 감추었던 무기들 꺼내고 야자열매 통조림으로 가장한 폭발물을 비행기 출입구에 장치 함으로써 비행기는 간단히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人質救出에 難關많아

그리고 벵가지에는 급유를 위해 들렀을 뿐이고 최종목적지는 그들에게 우호적인 아프리카 中央部의 나라같았으며 면밀히 계산된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듯 했다는 것이었다。



◇경유지 아테네를 이륙한지 수분후 행방불명이 된 에어·프랑스소속 에어버스。승객과 승무원을 태운채 팔레스티나 게릴라가 납치한 이 비행기는 리비아를 거쳐 우간다로 끌려갔다。

에어버스139편이 납치당한 다음날인 6월28일 월요일 새벽3시, 페레스 국방상은 공항의 전선사령부로부터 텔아비브시내의 국방부 집무실로 돌아왔다。한 정보장교가 그에게 139편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의 엔테베 공항에 착륙했다는 정보를 전했다。

페레스 국방상은 아프리카의 흑인 신생국가인 우간다와 그 나라의 통치자 아민 대통령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이스라엘은 수년간에 걸쳐 이 독재자를 원조했고 이스라엘 공군은 우간다 공군양성을 맡아 힘쓴바 있었다。

이스라엘이 우간다에 어토록 힘을 쏟은것은 전국당시 만약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세워져있는 팔레스티나에서의 건국사업이 如意치 않았더라면 그대신 우간다에 유태인 국가를 세우려고 생각 했었기 때문이다。

집무실에서는 이미 굴 참모총장과 그의 막료들이 우간다의 지도와 사진을 펼쳐놓고 이스라엘군에 의한 인질구출작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질구출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문제점 몇가지가 발견되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는 거리가 4천㎞이상이나 되어 구출작전에 동원되는 비행기는 무착륙으로 왕복할수없고 둘째는 두나라사이의 경로(經路)에 가로놓인 나라는 적대국들 뿐이며 세째로 인질을 잡은 게릴라들이 우간다 아민대통령의 지지를 얻고있다는 점이었다。

팔레스타인 게릴라가 拉致…우간다 엔테베空港에 着陸

犯人은 主犯 자벨외에 獨逸人男女등 5명

중공과 소련에 극히 우호적인 진영국및 이탈리아보호령이었던 소말리아는 하다드등 PFLP(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에게 안성마춤의 은신처였다。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도 이전엔 영국식민지였으나 지금은 독립했고, 전통적으로 영국의 영향이 강했던 이디오피아도 하일레·셀라시에황제의 실각으로 친서구(親西歐)국가는 아니었다。

그리고 미독립국인 라파르·잇사(옛프랑스령 소말리아=현재는 디부티공화국)도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는것은 디부티구뿐이었다。

게릴라들은 우간다에 비밀조직을 갖고있어 그 조직의 지도자가 소말리아를 거쳐 육로(陸路)로 우간다에 갔다는·소문이었고 국영우간다방송은 국민들에게 게릴라에게 협력할것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난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군사행동을 일으킨다면 작전에 동원되는 비행기는 적대하는 아랍·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우회(迂廻)해서 소말리아의 소련제경계탐지 레이다망(網)을 피하여 비행해야 했으며 또한편으로 비행기의 항속거리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나라중의 어느 곳에 필수(必須)불가결(不可缺)로 급유(給油)기지가 필요했다。우호관계로 보아 급유가능 기지는 디부티뿐이라고 여겨졌다。

굴 참모총장은 아론외상에게 디부티공항 사용에 대해 프랑스의 뜻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자신은 공정(空挺)부대사령관을 불러 139편이 벤·구리온 공항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지만 특수부대는 출동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수 있도록 계속 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위기대책 위원회는 28일밤까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①139편 비행기 납치는 하다드가 계획한 것이나 자신은 소말리아에 있으면서 직접 작전에 참가하지는 않았다。②납치의 주범은 PFLP 급진파의 라에즈·압둘·라힘·자벨로 보여지며 그외에 독일인 남녀 각 1명씩이 있다。③그들이 노리는 바는 납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굴복시켜 국제적 위신을 실추(失墜)시키는 데에 있으며④과격한 투쟁으로 자벨이 주창(主唱)하는 폭력혁명이론에 정당성을 부여,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데에 있다。

1973년12월, 로마에서 미국국적의 팬·아메리칸 항공기를 습격하여 31명을 살상한 사건을 지휘한자가 자벨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라빈수상을 비롯한 위기대책 위원회 멤버의 얼굴에는 우색(憂色)이 짙게 깔렸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매우 괴롭힌 정보가 또 접수되었다。

빅대디(큰 아버지)로 불리는 우간다의 아민대통령이 무장한 팔레스티나 게릴라들을 데리고 엔테베의 인질들 앞에 나타나 납치범과 이스라엘간의 중재자(仲裁者)가 되겠다고 나섰고 또한 석방된 단 한명의 승객 하이맨부인이 에어버스의 機內에서 유태인 승객들이 그밖의 승객들로부터 격리되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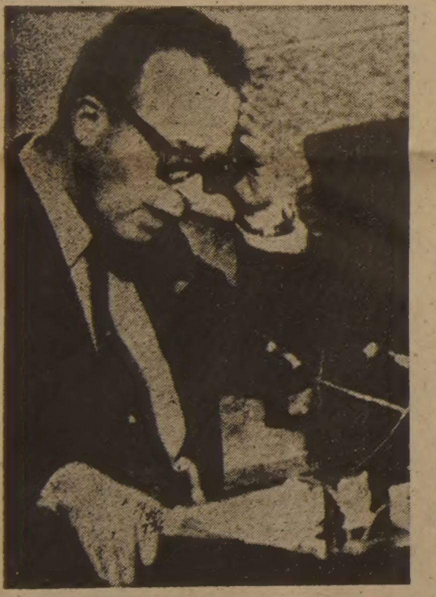
이스라엘선 아민과 절친한 바레브大領 내세워 電話欺瞞작전

게릴라는 "抑留된 테러리스트들 釋放" 요구

전자의 정보로부터는 아민대통령의 중재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섭이 어렵게 될것이 예상되었고 후자로부터는 제2차대전중 나치 독일의 강제수용소에서 수 많은 유태인이 학살당한 사실이 회상되었다。

이스라엘의 군사고문단이 우간다에 파견되었을 때 그 단장을 맡았던 전 육군대령 바록·바레브는 퇴역한뒤 텔아비브의 교외에서 상점을 경영하고 있었다。한때는 4백명이나 되는 고문(모두 군인)을 거느렸던 바레브대령은 아민대통령과 숙친한 사이였다。위기대책위원회는 바레브대령을 통해 옛친구인 아민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아민이 이번사건에 대해 품고 있는 뜻을 탐지하고 아울러 장시간 전화로, 통화함으로써 시간을 끌도록 부탁했다。

위기대책위원회는 바레브대령이 통화할때 모리셔스에서 열린 아프리카통일기구(OAU)의 의장으로서의 아민의 공적을 찬양하고 그가 다해야할 책임을 강조하여 아민의 심중(心腸)을 흔게 하도록 지시했다。



◇이스라엘의 이츠하크·라빈 수상이 긴급구성된 위기대책위원회에서 납치된 이스라엘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팔레스티나 게릴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들어 仲裁役을 맡겠다고 나선 우간다의 아민대통령。

바레브대령의 성의있는 협력으로 위기대책위원회가 고안(考案)한 전화에 의한 기만(欺瞞)작전이 성공한 가운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또 심리학자이며 이스라엘 정부의 최고 과학 고문인 도울바사는 아민대통령의 성격과 심리를 분석하고 그 행동을 예측하며 인질 해방의 수단을 발견하려고 노력 했다。

■착오로풀려난 猶太노파

6월29일·우간다방송은 게릴라가 각국에 억류중인 테러리스트 53명(이스라엘의 40명, 서독의 6명, 케나의 5명, 스위스및 프랑스의 각1명)의 석방을 요구 했다고 보도했다。

납치된 에어버스의 소속 회사인 에어·프랑스및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와의 연락을 맡은 한편 인질들의 가족들로부터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인질들에게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해줄것을 강요당한 야코비 운수상은 피로에 지쳐 있었다。

프랑스는 말로만 큰소리쳤지 강경한 태도는 취하려 들지 않았고 ICAO는 국제연합(유엔)처럼 이스라엘을 적시(敵視)하는 제3세계의 나라들에게 약하며 믿음이 되지 못했다。

6월30일, 테러리스트의 석방요구를 한 게릴라가 『이스라엘시간으로 7월1일 오후2시까지 요구에대한 회답이 없으면 인질을 죽이고 비행기를 폭파해버리겠다』고 表明했다는 정보가 접수되자 위기대책위원들은 모두가 조속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뜻을 모았다。

그날 낮 게릴라는 돌연『부녀자·노인을 포함한 47명의 非유태인 승객을 해방한다』고 발표했고 석방된 승객은 이날 밤늦게 파리에 도착했다。

이들 석방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민대통령이 중재하겠다는 참뜻은 의심스러우며 유태인들은 엔테베공항의 별실(別室)에 수용되어 있고 그들만이 거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석방된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착오로 풀려난 한 늙은 유태인 여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여자는 나치독일의 강제수용소가 붙여준 번호의 문신(文身)이 팔에 박혀있었는데도 패스포트로는 유태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해 석방되었던 것이다。

이 여자는 『32년전에 강제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온 몸이 오싹 해지더군요』라고 감상을 말했으며 이 말은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국내에 퍼져 테러행위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 불을 붙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부드러운 태도를 취했다가 고자세(高姿勢)로 변한 게릴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이스라엘정부의 의견은 두갈래로 갈렸다。

하나는 평화적교섭에 의해 해결하자는 온건한 의견이었고 다른하나는 군사행동으로 인질을 탈환하자는 강경한 의견이었다。온건계획을 A계획, 강경계획을 B계획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외무성은 세계의 주요국가의 원수(元首)와 유엔발트하임사무총장에게 『아민 대통령이 게릴라를 설득하여 인도적해결에 힘쓰도록 우간다정부에 요청해주기바란다』고 부탁했고 비행기를 맡긴 프랑스정부도 아프리카 여러나라에 선의의 협력을 요청했다。그러나 각국의 태도, 특히 게릴라에게 억류중인 테러리스트의 석방을 요구당한 각국의 태도는 비협조적이었다。

그런 한편 인질의 가족들은 억류한 테러리스트를 석방하여 게릴라들이 요구하는대로 평화적해결의 길을 모색하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강해졌다。

30일밤에 이르러 야코비운수상과 알란관방장관은 인질의 가족들에게 ①정부도 게릴라들이 제시한 최종회답시한(時限)을 충분히 알고있다。②인질을 구출하는 것이 이스라엘 정부의 주요관심사이다는 정부의 뜻을 밝혀 그들의 흥분을 달래야만했다。

<다음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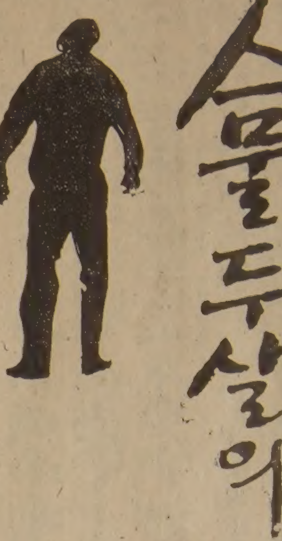
현 대 한 국 작 가 초 대 전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장 소: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특설화랑)
시 간: 10월8일(목) 9일(금):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2시~ 〃
〃 12일(월) 13일(화): 〃 6시~ 〃

주최: 한인양로원 건립위원회
후원: 서울대학교 동창회, YMCA, 한국일보, 민중신문, 코리언저널, Y멘즈클럽(알파, 베타)

스물두살의 자서전 ㊷



金洪信 作
崔然石 畫

連載小說

낮 익은 얼굴. 어디서 본 여자인까? 맞아. 저녁때 호텔 나이트 클럽의 무대에서 봤어. 방정맞을 만큼 몸을 흔들며 노래를 했었지.

이름이 뭐더라. 그래 맞아. 보슬비지. 쌍둥이는 아니지만 비슷비슷하게 생긴 애 둘이서 똑같은 율동으로 몸을 흔들며 노래하는 애들이지. 애가 언니던가?

『안녕하세요. 보슬비 미향이에요.』

목소리가 표정만큼이나 나긋나긋했다.

『언니야, 동생야?』

『제가 동생에요.』

『그런데 여긴 왜 왔어.』

『춘삼이 오빠가 알아서 모시라고 해서요. 잘 부탁드릴께요.』

『큰앤 어디 갔어. 아까 같이 노래 불렀잖아.』

『옆방에요.』

미향이는 춘삼이 형 방을 가리켰다.

『샤워하시겠어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미향이는 수건을 내밀었다. 샤워실까지 따라 들어올 자세인 것 같았다.

『나 혼자 하지.』

지난줄거리

춘삼이는 작전대로 유리와 명식이를 묶어 산장으로 보냈다. 명식이의 동정을 유리는 자신있게 해치울 것이다. 명식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었다. 한편으로 춘삼이 형은 만나 가짜 휘발유(비빔밥) 사건에 대한 내막을 듣고 뛰어들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또 욕망의 분사를 위해 모처럼 여자를 훔치려 호텔 방으로 들어선다.

나는 수건을 받아들고 일어섰다.

『부끄러우신가부다. 호호호…』

나는 대꾸 없이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뒤통수가 뜨뜻해지는걸 느꼈다. 여자가 대담하게 나오면 아무리 심장이 강한 사내라도 별수 없는 모양이었다.

샤워기를 세게 틀어놓고 비누칠을 시작했다. 팽창되는 내 아랫도리를 쳐다보았다. 내 어디에 그런 요물스러운 힘이 남아 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다혜의 얼굴이 또 떠올랐다. 미향이와 비교해서 다소 못생긴 여자에 속했지만 떨쳐버릴수 없는 마음 속의 여자였다.

『등 밀어드릴께요.』

미향이가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큰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용감해지고 싶었다. 술기운으로라도 그녀앞에서 위축되는걸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 어디 솜씨 좀 보자.』

내가 등을 내밀었다. 미향이 손이 등을 쓸어 내려갔다. 감촉 좋은 손바닥이었다. 그 자리에서 멈치고 싶을만큼 내 등허리는 행복해졌다. 비누칠을 하고 샤워기를 댄 미향이가 귀가까이에 대고 말했다.

『나 내일 공연 있어요. 살살 다뤄줘요. 너무 건장해서 좀 무서워요. 아셨죠?』

나는 피식거리며 웃었다. 내 발달된 근육과 육체를 보고 지레 겁을 먹는 모습이 싫지 않았다.

『너 좀 녹여주면 안돼? 내일 공연은 내가 책임질께.』

건장하다는걸 과시하고 싶었다. 이것이 사내들의 기쁨인지 모른다.

『그러지 마요. 다음에 우리 집으로 초청할께요. 스케줄 없을 때.』

『너 약속하는 거지?』

『그럼요.』

차가운 물줄기를 뒤집어쓰고 밖으로 나왔다. 조명이 바뀌어져 있었다. 축 낮은 붉은 빛깔의 등이 앙증맞게 침대 모서리에 서 있었다. 미향이는 옷을 벗어서 침대 머리에 던졌다. 붉은 빛 도는 그녀의 나신이 육실나게 빛나고 있었다. 저런 여자라면 지옥까지라도 좇아가 운우의 정을 나누고 싶었다. 출렁이는 침대 위에 미향이는 꼳게 누웠다. 내가 그녀옆에 나란히 누웠다.

『춘삼이 오빠도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모양이죠?』

『왜 무서워해. 멀쩡한 사람한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사람들 하고 하는 얘길 들으니까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한테 걸리면 누구라도 뼈를 추린다던데요. 그렇게 센 거예요?』

『주먹질 잘하는 놈 치고 오래 사는 것 봤니?』

『…』

미향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몸을 가볍게 옆으로 돌리고 내 머리칼을 가볍게 긁었다. 내 코 앞에 그녀의 가슴이 밀착되어 들어왔다. 그녀의 몸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향내가 났다. 나는 그녀를 깨물기 시작했다.

미향이는 숙련된 배우였다. 그녀의 직업은 가수였지만 그녀의 육체는 배우였다. 나무랄데 없는 완벽한 연기수업을 받은 여자 같았다. 그녀는 몸 전체를 수축했다가 몸 전체를 확장시키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뜨거워서 열꽃이 필 것처럼 달아오를 줄 아는 여자였다. 무너져 내릴 줄도 알았다가 가파른 언덕을 기어오를 줄도 알았다. 평소에 흉내

"너무 건장해 무서워요,공연에 지장없게 살살다뤄줘요 가수라기보다 육체는 완벽한 연기수업 받은 배우였다"

날 수 없는 동물의 소리도 낼 줄 알았고, 그녀 스스로 불 붙는 열정도 소유하고 있었다.

한 순간이 짧게, 외마디 비명소리처럼 지나갔다.

침대와 우리는 한꺼번에 습도계처럼 민감하게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고르지 않은 숨소리가 침묵을 밀어치우고 있었다. 식지 않은 내 육체 위에 입바람을 불어주며 그녀는 나를 간지럽혔다. 열탕 속을 빠져나와 다시 냉탕으로 뛰어든 것처럼 신선한 바람이 일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의 육체는 임무를 완수한 병정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담뱃불을 붙여 내민 미향이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고마와요.』

미향이 목소리가 묘한 충동질을 해주었다. 상상력으론 그녀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는 당당한 개선장군처럼 그녀를 한 팔로 움켜듯 잡았다. 그녀는 신음 덩어리에서 한 가닥씩 신음소리를 내놓듯 작고 긴 여음으로 뭇소리를 내었다.

『절 잊지마세요. 여기가지 도와주시고요.』

『그래 그리자구.』

나는 대번에 그녀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내가 보슬비의 후견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그녀는 약속과는 달리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욕망의 봇물은 터놓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충족을 던져주고 싶었다. 그녀 가슴에 내 존재를 강렬하게 남기고 싶었다.

다시 우리는 용광로를 점화하듯 불붙기 시작했다.

흡혈귀처럼 우리는 서로를 탐험했다.

그리고 우리는 숨쉬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절정을 넘겼다.

눈을 떴다. 미향이는 언제 무대에서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화장을 하고 있었다.

『더 주무세요. 전 가봐야 하거든요.』

『나도 일어난다.』

『안돼요. 제가 나가고 난 뒤에 나오세요. 뻔히 아시잖아요. 서울 가서 연락 주세요.』

『그렇군.』

나는 그녀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인기를 생명으로 하는 그들이 소문의 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미향이는 내 손놓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나갔다. 나는 벌떡 일어나 목욕탕으로 들어가 길고 뻐근한 방뇨의 쾌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다혜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거울에 물을 뿌리고 돌아섰다.

하나님, 이 꼴을 다혜가 알진 못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못생긴 엉덩이를 관찰한 기록을 치부책에 적어놓지는 않았겠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와도 빌 수 없다구요. 사내들의 아랫도리에 대해선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행복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눈을 감는 것이죠.

결혼해서 사는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꼭 살아야 된다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서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얼렁뚱땅 사는 거라구요. 하나님은 그 점을 곧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한번 결혼하면 영원히 같이 살라고 엄명했지만 그건 사람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선입니다.

침대에서 늘어지게 한숨을 자고 천천히 산장쪽으로 내려왔다. 피서인파가 갑자기 줄어든 설악동 풍경이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미안하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담요 위에 누워 있던 녀석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문제가 생겼어.』

나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나오는걸 가까스로 참으며 되물었다.

『무슨 문제? 무슨 일 있었니?』

『나두 모르겠어.』

명식이는 금목걸이 한개를 목에서 끌러 내놨다.

『이게 뭐야?』

『유리 거.』

『유리라니?』

『엊저녁 그 처녀 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자고 갔어.』

『뭐야! 네 솜씨 알아 줘야겠는데.』

『지랄마. 가엾어 죽겠어.』

『이 새끼 첫날밤 지내놓고 가엾진 뭐가 가엾다구 능청야.』

『그게 아니라니까.』

녀석은 정말 심각해 있었다. 엊저녁에 지배인을 시켜 마련했던 목걸이가 어째서 명식이 손에 있는지부터가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유리가 정표로 준 거야. 곧 시집가게 됐대. 맘에도 없는 남자래. 집안에서 강제로 시키는 모양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친구들하고 여길 놀러왔다가 그 깡패 새끼들한테 쫓긴 거래. 유리 걘 천사였어. 난 걔 다 가졌어. 걔도 내게 모든 걸 주고 싶댔어.』

열애에 빠진 소년처럼 녀석은 창밖에 시선을 두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시집갈 애하고 자는 게 말이나 돼.』

『나두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냥 좋아했어.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무섭다고 쪽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길래 자리를 봐주고 내가 나가려고 했어.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나를 붙잡고 강제로 결혼하기 싫다고 했어. 우린 그래서 신세타령을 시작했지. 나는 다리병신이라서 여태 사랑도 제대로 못해봤다고 했지. 걔가 내 무릎을 베고 누워서, 이 병신이 된 다리를 만져 주며 맹세하자고 했어. 꼭 고시에 패스해서 만나자고. 그동안 걔는 멀리 도망가서 살겠댔어. 신문의 발표에 내 합격소식이 있을 때까지 꼭 살아 있겠댔어. 그 맹세로 걔는 모든 걸 줬어. 난 기필코 걔를 찾아야 돼. 이젠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나라도 먼저 돌아갈 생각이다. 난 고시에 패스해야 돼. 우리가 오래 숨어있게 할 순 없어. 안 그러니?』

명식이의 눈빛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런 명식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말 한편의 소설같구나. 넌 개를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하고도 약속해야 돼. 고시에 패스해서 유리라는 그 여자와 나란히 팔짱을 끼고 나타난다는 걸.』

『맹세한다. 내 모가지를 걸겠다.』

『그래, 널 믿겠다.』

『난 돌아가고 싶어.』

『좋다. 가자.』

우리는 부지런히 짐을 챙겼다. 명식이는 신바람이 난 사람처럼 등산장비를 손질했다.

유리는 나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킨 모양이었다. 그녀를 내가 상상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훌륭한 연기력을 보여준게 확실했다. 금목걸이를 금히 사랑란 것은 이미 그녀의 가슴속에 불우한 처지의 한 남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는 의지를 숨긴 셈이었다. 그리고 명식이가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그때 꼭 만나자는 실현될수 없는 맹세를 한 것은 나를 몹시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명식이가 고시에 패스하는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유리가 다시 명식이를 찾아오지 않을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유리를 꼭 만나고 올라갈 생각이었다.

모든 여자들이 유리처럼 현명해준다면…. 그리고 다혜가 유리만큼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져준다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산장을 나왔다. 춘삼이형도 만나봐야 되겠고 유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나 하고 떠날 생각이었다.

『아는 선배가 여기 와 있어. 잠깐 들러서 고속버스표도 부탁해보고 인사도 하고 올께. 마저 준비나 해둬.』

『후딱 갔다 와.』

명식이는 당장이라도 공부에 열중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호텔로 올라가 춘삼이 형을 만났다.

『애 편하지?』

『쓸만 했어요.』

『자아식…를 블라스야. 괜찮은 정도면 너한테 보내질 않았어.』

『그런 것 같았어요.』

『표는 터미널에 나가면 애들이 전해줄 테니까 걱정마. 그리고 난 이삼일 더 있다 갈테니까 올라가는 대로 김포 녀석부터 만나봐. 내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녀석가 루트를 잡아줄 거다. 조심해야 돼.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사를 건 애들이라 손쉽게 건드려선 안돼.』

『명심하죠.』

『너만 믿는다. 자, 이건 착수금이다. 접선하려면 그만한 돈은 있어야 거다.』

춘삼이 형은 하얀 사각봉투를 내밀었다. 내가 펼쳐보려고 하자 춘삼이 형은 손으로 막았다.

『나중에 펴봐.』

나는 호주머니에 쩔러넣고 춘삼이 형에게 자단한 부탁을 하나 했다.

『그거라면 내가 할 수 있지.』

춘삼이 형은 전화기에 대고 뭐라고 한참동안 지껄였다. 지배인이 올라와 봉투째 돈을 받아가지고 나갔다.

『유리 걘 여기 있는 애가 아냐. 피서철이라 스카우트된 애지. 걔를 하루 저녁에 십만원으로 구워 삶는다는 건 기적였다.』

『그 십만원도 받지 않았어요. 내 친구한테 금목걸이를 줘버렸거든요.』

『그러고도 날을 세? 네가 유십나다면 보내줄 수도 있어.』

『형, 우리 걔 데리고 장사할 생각 없어요?』

『무슨 장사?』

『최고급 술집 한번 해보지 그래요. 걔 저렇게 내돌리지 말고 사장 시켜봐요. 아까와서 그래요. 형이 안한다면 내가 해보겠어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좋은 아이디언데.』

춘삼이 형이라면 유리를 저렇게 내돌리지 않고도 유리의 수입을 충분히 감안한 고급술집을 차릴 능력이 있을 것 같았다.

『너 아주 반했구나. 한번 입 맞춰봐서 좋다면 시작하지 뭐.』

우리는 유리를 사장으로 앉히고 춘삼이 형이 물주가 된 술집을 구상하고 설계했다. 춘삼이 형도 조금 흥분되는 모양이었다.

노크소리가 나고 지배인이 들어와 포장된 상자를 내놨다.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읍니다.』

나는 상자를 들고 옆방으로 건너갔다. 유리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정말 고마웠소. 나도 제 멋대로 이 호령하며 자란 놈이오. 우리 서유리씨를 위한 일이면 내 이름을 걸겠소.』

헛소리가 아닌 진심의 소리였다.

『고마와요. 그리고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나중에 꼭 고시에 패스하면 명식씨에게 편지를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매일 일기 쓰듯 편지를 써놨다가 그때 한꺼번에 부칠 거예요.』

우리는 십여분동안 명식이 얘기만 했다. 유리는 명식이 말처럼 천사같은 여자라는 확신이 내 가슴 속에 섰다.

『이건 내 작은 정성입니다. 조건없이 받아주세요. 명식이의 사랑도 들어 있는 겁니다.』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걸요.』

『알아요. 내가 춘찬이란 놈입니다. 소문 들어서 알 겁니다. 이런 짓하는 성질이 아니라는 걸. 유리씨는 내 친구의 정신을 살려준 사람예요. 두 말하지 맙시다.』

『그럼, 받겠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훗날 명식씨를 위해 쓰겠어요.』

그녀는 상자를 받았다.

우리는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유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천사처럼 웃었다. 그녀가 몸을 파는 여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 같았다. 술집 새시를 뚜유의 울타리나 새쳐어린 표정이 아니었다. 그냥 양가집 규수의 표정이었다. 아니 내 눈엔 천사가 되려다 만 여자의 자태였다.

짐을 꾸며 메고 택시를 탔다. 설악동을 빠져나가 속초쪽으로 달렸다. 바닷가를 이어놓은 도로 끝에 지평선이 보이는 쾌청한 날씨였다. 신선한 바람이 차창으로 메어터지게 들어오고 있었다.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땅이구나.』

명식이가 밝음 눈을 감고 내게 한 말이었다.

『그래, 나도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다.』

내가 명식이의 말을 이렇게 받았다. 갈매기 떼가 파도 타기라도 하는 것처럼 낮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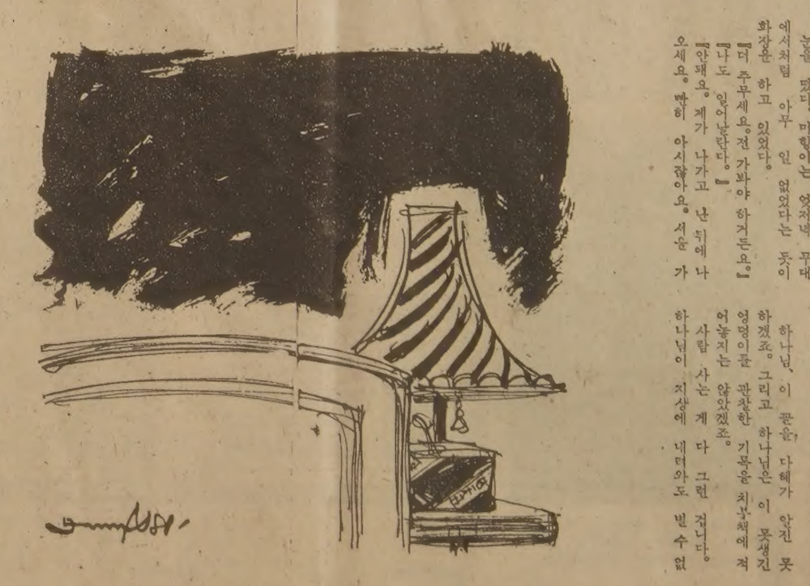
『속초 가서 느이 누님 드릴 선물 좀 사자.』

명식이가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어내 손에 쥐어 주었다.

나는 녀석의 돈을 받았다.

바람이 얼굴을 따갑게 했다. 명식이는 혼자 웃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괜찮은 정도가아니야…가엾긴 뭐가 가엾다고 능청이야 천한 여자라기보다 天使가 되려다만 규수처럼보이고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공무원 總定員法制化 검토

政府、一定수준·時點서 凍結

機構신설 增員되풀이 防止

機構축소 계기 職種別조정

政府機構축소 改編작업을 완료하는것과 때를맞춰 앞으로 무질서한 기구의 新設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공무원 總定員制를 채택할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23일알려졌다. 공무원 總定員制는 일정수준의 공무원定員을 一定時點을 기준으로 凍結, 法으로 묶어놓는 제도이다.

80년말 定員 73萬9千여명

정부는 총정원제의 도입과 함께 이제도에 신축성을 부여하기위해 불가피하게 기구를 신설해야할 필요가 있을경우 이總定員범위내에서 職種별로 필요한 정원을조정, 충당케한다는 것이다.

정부기구축소작업을 진행중인 총무처는 기구조정작업발표당시 關係法의 개정이불필요할것이라고 밝혔으나 작업을 진행해가면서 정부조직법등 관계법의 개정필요성이 인정됨에따라 이에맞춰 總定員制의 도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것으로 전해졌다.

總定員制의 도입 필요성은 간소한 정부를 구현해야한다는데는 누구도 異議가 없으나 정부기구를 축소한 후에도 不要不急한 기구가 되살아나 축소以前 또는 그이상으로 팽창해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學界나 정부관계자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한관계자는『總定員制에도 長短點이 있으나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축소됐던 기구가 얼마못가서 變形돼 되살아나곤 했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를 막는 확고한 장치가 필요하다』고말했다.

이관계자는 또『공무원총정원을 묶을경우 어떤수준으로 凍結할것인가 하는문제는 기구축소 개편작업완료직후의 수준이어서는 無意味하다』고 말하고『이번 기회에 總定員制를 法에 규정해놓고 실질적인 축소가이루어진 시점에서 묶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定員(80년12월말현재)은 국가공무원 58만9천20명, 지방공무원 15만5백66명등 모두 73만9천5백86명이다.

행정부의 국가공무원은 43만8천4백54명이며 일반회계부문이 32만3천6백97명, 특별회계부문이 11만4천7백57명이다.

일반회계부문의 분야별 정원에서 제일많은분야는 교육공무원으로 19만3천1백65명이고 다음은 일반행정공무원으로 12만9천3백65명이다.

국가공무원의 年度別증가 추세를보면 67년에 8·1%인 2만7천2백66명이 增員된이후 72년 0·4%인 1천8백67명이 증원된것을 제외하고 매년 1만2천~3만2천여명線에서 증원됐다. 특히 80년에는 3만2천3백73명이 증원돼 增員인원에선 60년대이후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공무원의 분야별 정원증가 추세를보면 65년을 기준으로 해서 외무공무원이 2백74%로 늘었고 체신공무원이 2백64%, 교육공무원은 1백84%, 專賣공무원은 1백27%, 철도공무원은 1백15%로 각각 늘었다.

國會 議員外交보고

訪問보다 招請으로

국회는 23일하오 본회의를 열고 丁來赫국회의장의 미국 및 콜롬비아 방문결과와 의원친선협회 4개班의 議員外交결과를 보고받았다.

丁의장班은 이날 활동보고를 통해『의원외교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서로 문화적배경이 다른점을 감안해야할것이며 방문단은 다수보다는 소수로 구성하고 되도록 개별접촉을 강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고 방문외교못지않게 초청외교 또한 효과적일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丁의장班의 柳瓊賢의원은 보고에서『콜롬비아와 미국방문을 통해 對美의원외교활동은 모든 의원들이 主體가 되어 마디가 없는 영속적인 과업이라는 시각에서 多元化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말하고『특히 韓美관계는 내년에 修交1백주년을 맞는것을 계기로 美議員들이 개인이나 단체로 방한할수있는 초청계획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터키兵士 百여명 死傷

土空軍 F5戰鬪機 野營場추락

나토훈련參加 대기중慘事

【앙카라22日AP=聯合】터키공군소속 F5 전투기 한대가 22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추계군사훈련을 준비하고있는 터키서부의 군야영지에 추락, 최소한 26명의 터키군병사들이 사망했으며 사망자수는 더욱 크게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고 군소식통들이 말했다.

소식통들은 1백여명의 사상자들이 22일하오 헬리콥터편으로 이스탄불의 3개병원에 후송됐으며 이스탄불1군사령관 하이다르·살티크장군이 사고현장에 급파됐다고 전했다.

이 사망자들은 모두 터키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24일로 예정된 상륙훈련에 참가한 나토의 다른 외국군부대는 아직 현지에 도착하지 않았다.

군소식통들은 F5전투기의 조종사는 사고당시 비상탈출에 실패, 사망했다고 말했다.

사고는 터키가 그리스 불가리아및 소련해군이 흑해에서 지중해로 빠지는 유일한 수로인 보스포러스해협의 서쪽과 연해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터키의 트라키아지방에서 일어났다.

사고지역은 이날 정오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발생 4시간만에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는 기자들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사고지역에서는 미·영·佛·이탈리아및 포르투갈 군대들이 터키군과 합동으로「디스플레이·디터미네이션81」이라는 작전명의 상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景品附판매 全面調査착수

公正去來室 TV放送 景品추첨 규제檢討

"비용轉稼"소비자단체서 告發

不況下의 販捉전략으로 최근들어 업계의 각종 景品附판매가 경쟁적으로 에스컬레이트되고있는 분위기인데 이에대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실은 최근 소비자단체등의 口頭고발에따라 우선 롯데三岡과 롯데우유가 아동들을 상대로한 아이스크림과 主婦상대의 마요네즈 판매에 우표와 플래스틱 스푼을, 第一製糖이 조미료 아이미와식용유판매에 어린이 장난감접시와 計量컵을 景品으로 제공하고 있고 진주햄소시지는 어린이 그림맞추기, 東邦油糧은 식용유購入에 비닐백을 景品으로 각각 주고있는등 최근의 경쟁적인 景品판매행위에 대해 이들景品판매가 부당하게 고객을유인,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지의 여부에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업계의 최근販捉경쟁이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경쟁보다는 오히려 景品경쟁으로 전환되어 소비자의판단을 현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景品附판매에 따른 不公正去來類型을 早期지정, 규제키로하고 이를위한 景品판매현황에대한 전면조사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시행취지에따라 지나친 景品판매는 결과적으로 景品비용이 제품가격등을통해소비자에게전가될뿐이고 오히려 해당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에대한 소비자의 선택기준을 혼란시켜 가격질서를 혼란시키고 國家的인 資源의 낭비까지 초래한다고 보아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실의 한관계자는 최근 한 소비자의고발에따라 실제원가 2천3백원짜리 상품에 2백원짜리 景品을 덧붙여 2천5백원에 팔고있는 某회사 景品판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TV프로에서 성행하는 懸賞景品(메이커가 제공한 景品을 TV공개추첨등을 통해 제공하고 광고를 곁들이는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를 상대로한 해태제과 브라보콘아이스크림의 사진액자 景品판매에 첫 是正조치를 내린바 있는데 공정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일본은 오랜 商去來관습을 존중, 제한적으로 景品판매를 허용하고있고 歐美各국은 景品판매를 거의 전면금지하고있다.

釜山에 地下鐵2개 增設

91년까지 首都圈 電鐵·地下鐵網12개 完工

2次國土종합開發試案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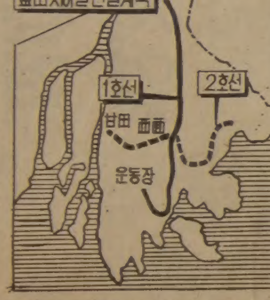
정부는 서울과 釜山의인구및 산업집중에따른 교통량증가에대처하고 유통체계를 정비하기위해 내년부터 오는91년까지 추진될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중 서울에 5개구간의 지하철, 7개구간의 수도권전철, 釜山에 2개구간의 지하철을 각각 더 건설하는한편 서울등 6대도시에 9개 대단위 화물유통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23일 국토개발연구원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위한 공청회에 건설부가제시한 試案에따르면 수도권전철은 현재 건설중인 城北-議政府간13·1㎞를 오는83년에 완공하고 이어 87년에 ▲龍山-水色간 9·6㎞ ▲水色-陵谷간8·0㎞ ▲城北-退溪院간 9·7㎞ ▲清涼里-八堂간 24·3㎞ ▲富谷-陶農간46·2㎞ ▲陵谷-議政府간31·8㎞등 6개구간을착공, 오는91년까지 모두 완공토록되어있다.

서울의 지하철건설은 이미 착공된 ▲시청-瑞草-시청간 38·8㎞ ▲구파발-良才洞간 30·0㎞ ▲上溪洞-果川간 27·0㎞등 3개구간을 오는 83년및85년까지 각각완공하고 ▲金浦-文來 ▲千戶洞-城南간 각각27·0㎞를 오는87년에 착공, 91년까지 준공토록되어있다.

釜山의 지하철은 현재공사중인 운동장-青龍洞간 25·3㎞를 85년에 완공하고 ▲甘田-水營간 20·8㎞를 86년에 착공, 89년에 완공토록되어있다.

정부는 이밖에 서울등 대도시의 인구증가에 따라 화물수송량이 크게 늘어날것에 대비, 내년에 건설키로한 富谷里의 서울남부화물기지, 城北역의 북부화물기지외에 오는87년부터 91년까지 서울·釜山·大邱·光州·裡里·大田등에 각1개소씩 도합 7개대단위화물유통기지를 추가건설키로했다.



將校후보奬學制신설

내년부터 大學生 9百명선발

民正黨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학자금조달이 어려운 대학생들을위해 歐美선진국의 장교후보학교(OCS·Officer Candidate School)奬學제도를 도입키로 정부측과 합의, 내년부터 이를 실시키로했다.

秦斗玩대변인은 23일 자질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돕고 軍의 우수한 초급장교확보를 위해 국방부및 정부예산당국과 내년부터 OCS제도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이장학제도의 도입에따라 정부는 내년신학기부터 전국대학생가운데 9백명을 선발, 이들에게 年間 1인당 사립대학의 경우 1백20만원, 國公立대학의경우 6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OCS장학금지급대상에서 ROTC학생은 제외되며 내년도에는 신입생 6백명, 재학생3백명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졸업후 소정의교육훈련을 거쳐 陸·海·空軍장교로 任官돼 장학금을 지급받은學年數에 비례하여 일정기간 복무케된다고 秦대변인은 밝혔다.

◇터키軍위에 추락한 터키機慘事 30여명의 사망자를 낸 터키공군기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은 한병사가 구급차에 실려와 병원으로 급히 옮겨지고 있다. 【바배스키(터키) 22日AP電送=聯合】

南北韓首腦 상호訪問지지

"北韓은 유엔사무총장仲裁 응해야"

소노다外相 유엔서

【유엔本部23日=金泰雄특파원】소노다 일본外相은 22일하오 유엔총회에서 南北대화의 재개를 위해 북한도 유엔사무총장의 중재에 응해야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南北수뇌 교환방문을 제의한 한국의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한 소노다외상은 대화재개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對政府 질문자 民韓 6명결정

民韓黨은 23일 국회本會議의 對정부질문에나설 6명의 의원을 다음과같이 결정했다.

▲정치 외교 안보=金判述 金魯植▲경제=許京萬 洪思德▲사회=金珍培 金燦于

朴定洙會長議總서 議政同友會 탈퇴

朴定洙議政同友會회장은 23일하오 의원총회에서 회장직 사퇴서와 아울러 의정동우회 탈퇴서를 제출했다.

朴의원은『총무회담에 의정동우회대표도 업저버로 참석하게 됐을뿐더러 常委幹事회의에도 참석하게되는등 同友會가 정상궤도에 올라섰고 나자신도 同友會발전을 위해 봉사할만큼 했기때문에 물러나는것』이라고 탈퇴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朴의원은 22일의 文公委員長선출에서 同友會소속의원들이 朴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民正黨의 候補의원대신 同友會의 金吉俊의원에게 표를 던졌기때문에 이에대한 不滿으로 脫退書를 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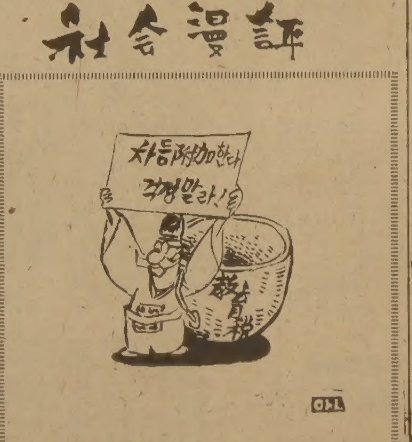
올림픽誘致團長 朴서울市長向獨

IOC총회參席

88년 제24회 올림픽서울유치단장 朴英秀서울시장이 23일하오6시 KAL901편으로 서독의 바덴바덴으로떠났다.

朴시장은 李元洪한국방송공사사장, 李宣基총리실행정조정실장등 일행과 함께 출국했는데 25일 바덴바덴시에 도착, 29일에는 개최신청지의 시장자격으로 올림픽유치제안설명을 하고 오는10월4일 귀국하게된다.

社会漫評



생색내고…걷고…

地平線

소용돌이 속의 폴란드를 찾은 어느외국기자가 폴란드인 통역을 만났을 때의 얘기다. 바르샤바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먹는데 그통역은 옥파를 줄곧씹고 있었다. 그렇게도 옥파가 맛있는가고 물었더니『옥파처럼 맛있는 음식이 없고 집에있을때도 수프나 코피대신 옥파를 씹어 먹는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무슨 까닭이라도있느냐고 되묻자 그 통역은 갓난아기일때 엄마젖이나우유대신옥파즙만먹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치스의 강제수용소에서 태어나 어렸을적부터 생파로자랐다는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2차대전때 철도기사양성학교의 학생이었고 어머니는 농가의 딸이었는데 이들은 둘이 다같이 反나치 게릴라이면서도 결혼을 서로 게릴라라는 것을 당시 알았다고 한다. 만에하나 안전을위해, 또 슬픔을 덜기위해 그랬다는 사연이다. 서로 잡히더라도 어머니가 맨먼저 붙잡히고 몇달후에 그의 아버지도 잡혀 격리 수용되었다. 어머니는 형무소서아들을출산했지만 아버지는 보복처형으로 죽였다. 어머니는 딴수용소로 옮겨갈때 갓난아기를 할머니에게 맡겼는데 이할머니마저 또수난을 겪었다.

▼1944년8월 4만명이나 되는 폴란드지하조직이 연합군과 소련군의 지원을 믿고 바르샤바에서 봉기했을때 무렵 강건너까지 접근한 소련군은 바르샤바시민의 처참한 시가전을 눈으로 보면서도 손하나 까딱하지않았다. 그래서 바르샤바시민군은 66시간의 사투끝에 전멸될수밖에 없었다. 나치스는 곧 대가량 보복에 들어가 바르샤바시가지 전체를 파괴하고 살아남은 시민들을 모두 화물차에 실어 몇백㎞밖의 황무지에 그냥 내버렸는데 그때식량으로 받은것이 옥파밖에 없었다고 한다. 할머니 등에 업혀 그 옥파만으로 몇달을 살아온것이 바로 그 통역이라는 얘기다.

▼소련은 제정러시아때부터 폴란드인들을 탄압했고 폴란드 말, 역사, 지리를못배우게했다. 2차대전중엔 애국적인 폴란드군장교 4천명을 학살한사실까지 있다. 지금은 소련땅이된 스몰렌스크 근처 카친의 숲에서 벌어진 대학살사건은 그당시 나치스의 소행이라고 소련에서 발표했지만 서방측은 장소와 시기로 보아 소련이 저지른 짓으로보고 있다.

▼바웬사의자유노조운동으로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것이 어제오늘 시작된것이 아니다.『어킨 폴란드의自由化물결은 폴란드 민족의 수난을 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미워슈(미국에 망명중)는 시로노래하고 있다.『사랑의 英雄도 터지지 않는다. 의장상도 英雄를 없앨수는 없다』고.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433
은: 온스당
US9.54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NORTH YORK AUTO BODY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송대헌

DIPPER DAN
ICE CREAM SHOPPES
DIPPER DAN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이스크림회사로서 일본·미국등 350개의 Franchise가게를 갖고 있읍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20,000달러의 돈을 투자함으므써 아이스크림 비즈네스에 성공을 기약 할 수 있읍니다.
더 이상의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675-8930으로 전화하십시요.
(MR. 오)
DIPPER DAN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ARIO
TEL. 675-8930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담력'과 '老獪'의 對決

헤이그—그로미코會談은 探索戰

◇그로미코 ◇헤이그

【워싱턴 23日=曺淳煥특파원】헤이그美국무장관과 그로미코소련외상은 23일과 28일 두차례 뉴욕서 회담한다. 한번은 美유엔대표부에서, 또한번은 소련유엔대표부에서.

헤이그—그로미코회담은레이건행정부 발족후열리는 美·蘇정책결정참여급의첫 회담인데 지난8개월간에 美·蘇정부가 상대방을 만만히 보지않고 재어보고 팽팽히 맞서 왔기 때문에 온 세계의 관심을 모은다.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의 힘만이, 군사력증강만이 소련의 팽창주의를 꺾고 미국이 원하는 군축협상에 소련을 끌어들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이런측면에서 닉슨, 포드, 카터로 이어져온 미국의 데탕트외교를 레이건행정부는 거부한다.

레이건 행정부는 前카터때와는 달리 전략군축협상(SALT) 그자체가 美·蘇관계의 중심과제라고 보지않는다.

레이건행정부는 군축협상을 美·蘇협력의 한형태로본다. SALT는 소련의 對세계문제자세와 연결되어야 한다는것이 레이건이나 헤이그가 갖고있는 기본생각이다.

말하자면 소련이 中東이나 한반도에서 세력을 팽창해가거나 긴장을 고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군축협상테이블에 앉을수없다고 레이건 행정부는 본다.

카터행정부때는묵살된 「연계(Linkage)」가 레이건 행정부에 강력히 되살아 난것이다.

레이건행정부는 이 「연계」의 적극적 相互性마저 강조한다. 이를테면 미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소련위성국 쿠바를 건드리지 않으면 소련도 가까운 중동의 美우방이나 또 한국에서 직접이든 代理세력으로든 도발을 자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거꾸로 소련이 중동의 美우방이나 한국에서 도발하면 미국은 이지역에서 맞설뿐 아니라 소련위성국들의 약한곳에서 반격한다는 전략을 세우고있다고 와인버거 국방장관이 밝힌바 있다.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이처럼 對蘇수세에서 반격자세로 전환해가고 있다.

美 제3世界 통해 蘇迂回포위에
蘇 中性子彈생산 正面공격 예상
蘇지역 SS—20배치에 美퍼싱Ⅱ로 협상할듯

이런 흐름으로보아23일의 헤이그—그로미코회담도 헤이그가 공세로 나갈것으로 우선 내다볼수있다.

하지만 헤이그상대는 백전노장인 그로미코다.

그로미코는 헤이그의 선임인 7명의 美국무장관들과 겨루어온 경험이풍부한 노회한 외교관.

1943년 헤이그가 아직 노트르담 학생일때 프랭클린·D·루스벨트 대통령에게 駐美소련대사로서 신임장을 제정한 인물이다.

헤이그가 지난21일의 유엔기조연설에서 「성장의 새시대」라는 연제로 개발국들의 성장과 자유개방무역을 강조하는 평화연설을 한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로미코는 지난22일 미국을 「평화의 敵」으로 몰아세우고 강경한 어조의 연설을 했다.

군사전략가로서 강인함을 몸안에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드러움을 보이는 신축성있는 헤이그가 유엔기조연설에서 對蘇공격의 예봉을 감추고 평화이미지로 第3세계에 호소하여 소련을 우회포위하려 한 반면 노련한 그로미코는 정면 공격을 택했다고 볼수있다. 그로미코는 일부 유럽평화주의자들을 의식한것 같다.

그로미코의 유엔연설은 23일의 對헤이그회담에서 고지를 선점하려는 선제공격으로 풀이될수 있다.

유엔에서 그로미코연설을 들은 헤이그는 다소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작년에 심장개방수술을 받았지만 때로는 6세트의 테니스 게임을 계속해서 즐기는 56세의 헤이그장관의 패기가 71세의 그로미코와 비할바가 아니다.

레이건과 헤이그는 소련이 국내에서는 부진한 경제·사회문제및 과중한군비로, 對外적으로는 폴란드 사태로 그국세가 쇠잔해간다는 전략적 평가를 내리고있다.

소련이 군비경쟁에서 미국의 적수가 될수없다는것이 레이건행정부의 여유있는 對蘇고자세가 된다.

헤이그는 그로미코와의 회담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 소련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침공지원, 소련 대리세력인쿠바의 아프리카 침투, 리비아와 PLO를통한 국제테러리즘 조장등으로 소련을 공격할 것이다.

그로미코는 이에대해 이미 유엔연설에서 밝혔듯이 미국의 엘살바도르 지원, 페르시아灣서 美군사력 증강, 중성자탄 생산결정, SALTⅡ의 상원비준기피 등을 내걸어 헤이그공격에 역습할 것이다.

美·蘇양측이 23일의 첫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을 내걸어 한차례 공방전을 치른 후 상대의 강도, 뱃심, 진의를 탐색하려 노력 할것이다.

서전에서 소련은 카터행정부가 서명했으나 레이건행정부가 반대하는 SALTⅡ협정에 다소의 수정이 있을수 있다는 시사를 보일지도 모르나 결코 미국이 바라는 군비경쟁에 굴복을 뜻하는 소련의 양보는 있을수없다는것을 강력히 내세울 것이다.

그로미코는 첫회담서 타진 될것을 각기 한차례 이런 서막을 거친후 헤이그와 레이건과 브레즈네프와 상의한후 28일의 두번째회담에서 유럽의 전역핵군(TNF) 배치협상시작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의견타진이 전개될것이다.

美국무성의 한 고위관리는 두차례의 헤이그—그로미코 회담서 TNF협상시작시기문제에 대해서 만이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美·蘇간의 협상대화의 통로가 열리는 신호가 되며 그렇지 못하면 대화의 돌파구마저 찾지 못한것을 뜻하게 된다고 말했다.

TNF협상이란 소련이 이미 소련서부지역에 SS20 신형미사일을 나토를 향해 배치한데 대해 미국과 나토가 퍼싱Ⅱ중거리미사일및 크루즈 미사일을 나토지역에 83년부터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협상이다.

브레즈네프는 푸트 영국노동당지도자에게 나토가 퍼싱 Ⅱ미사일을 배치하지않으면 SS 20미사일을 철수하겠다는뜻을 비친것으로 알려졌다.

美·蘇간의 군축협상전략에 다소 접근되면 TNF협상이 오는11월말이나 12월초에 열리고 또 그것이 순조로와지면 내년봄에 SALTⅡ 협상이 열릴것이라고 美·蘇관계 전문가들은 본다.

美、對蘇관계개선 提議

레이건、브에 親書 對波武力개입 말도록

【유엔本部22日UPI聯=聯】레이건美 대통령은 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겸 연방최고회의 간부회 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양국관계의 개선을 제의하는한편 폴란드사태에 개입하지말도록 강력히경고했다고 美국무성이 22일 밝혔다.

딘·피셔 국무성대변인은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가 21일 그로미코 소련외상이 유엔총회에서 對美비난연설을 행하기직전 발송되어 22일 소련측에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친서에서 지난15년간에 걸친 소련의 일방적인 군사력증강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무력사용을 통한 각지역분쟁에의개입을 비난했으나 미국은 이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군축협상을 개시할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프간反政軍、首都圈공세 激化

蘇·政府軍은 戰車·장갑차增強

◇유엔本部앞의 反蘇시위군중들
일단의 反蘇시위군중들이 22일 소련 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의 유엔총회 참석에항의 유엔본부밖에서 데모를 벌이고있다.【뉴욕22일UPI聯=聯】

카불空港·경찰서등습격
蘇軍4명死亡…戰鬪치열

【뉴델리22日UPI=聯】아프간 침공 소련군과 親蘇카불정권에 대항해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아프간 회교 반군들은 최근 카불공항과 카불시내두곳의 경찰서를습격하는등 수도권에대한 공세를 격화시키고있다고 뉴델리주재 西方외교소식통들이 22일 전했다.

이소식통들은 반군의 카불시내 일원에대한 공세강화로 소련군과 정부군의전차와 장갑차및 항공기의움직임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반군이 지난주 카불공항과 시내경찰초소 두곳및 3개의 국영기업체공장을 습격, 항공기2대와 경찰초소및 공장시설을 파괴했으며 특히 지난 17일에는 카불공항부근의 소련인 거주지역이 반군의공격을 받았다고전했다.

소식통들은 또 카불주재소련대사관이 반군의 로키트포공격을 받았다는보도가 있으나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16일 카불근카르가호수 주변지역에서 6명의 소련군을 태우고 가던 차량이 로키트공격을받아 이중4명이 즉사했다고 이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소식통들은 또 카불북부의 전략요충지이자 반군의거점인 판시르계곡에서 헬리콥터와 전투기의 지원을 받는 蘇·아프간연합군과 반군간의 전투가 치열해가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불방송은 22일지난3주간에걸쳐 계속된 판시르계곡탐색작전이 성공리에 끝났으며 정부군이 이계곡을 완전장악했다고 주장했다.

美·日 海上訓鍊시작

潛艦등 96척動員 史上최대規模

【東京22日=聯】美제7함대와 일본해상자위대가 중동으로부터의 원유수송로를 무대로 실시하는 합동해상훈련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美·日합동훈련은 일본측에서 병력1만6천명,함정90척, 항공기 90대가, 그리고 미국측에서는 잠수함·순양함등 6척이 참가하는 사상최대규모의 훈련이다.

합동훈련은 오는 30일까지 남서제도 동쪽해역에서 일본상선대가 가상적의 잠수함과 항공기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상정아래 실시된다.

시리아、아라파트除去 음모

PLO議長 強硬派로 대체위해

【텔아비브22日AP=聯】시리아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을 좀더 강경파로 대체시키기 위해 야세르·아라파트 현PLO의장 거세음모를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의 하레츠紙가 카이로의 아랍소식통을 인용,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시리아 대통령 하페즈·아사드가 아라파트의 「물리적 제거를 위해」최근 베이루트와 다마스커스間을 승용차로 여행하려던 아라파트의 통행로에 공격부대를 매복시킬 계획을 세웠었다고 밝혔다.

사우디、美製대신 英製警報機에 관심

【런던23日AP=聯】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구매계획을 포기하고 영국제 님로드공중조기경보 탐지기를 대신 구매하는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영국의 더·타임즈紙가 英國소식통을 인용, 23일 보도했다.

더·타임즈紙는 사우디대표들이 英國의 맨체스터에있는 항공기 제작공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는데 이공장에서는 11대의 님로드機에 고성능 전자탐지장치를 부착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改革병행、對政府협상

波勞組、自律經營문제 妥協案제시

【바르샤바22日AP·AFP=聯】폴란드자유노조는 22일 공장노동자들이 국가나黨의 개입없이 스스로 경영진을 선출해야한다는 종래요구를철회、이른바「자율경영」에 관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개혁과 병행한 對정부협상의를 분명히했다.

이와 때를같이하여 폴란드 정부지도자들은 이날 바르샤바에서 일단의 최고위 소련경제사절단과 폴란드경제위기 해소방안등과 관련한 蘇·폴란드간 장래경제관계를 집중 토의했다.

자유노조 10인 상임간부회는 이날 자유노조 전국대회 제2단계 회의를나흘앞두고 노조운동 요람지그다니스크에서 전국대회 준비회의를 개최, 노동자들의 공장 자영및 여타문제를 논의한끝에 對정부대결의 지양을 뜻하는 타협안을 채택했다.

이 타협안은 ▲당국이 마련한 이타단을 내각이 작성하고▲당국이 공공서비스및 효용부문의 경영자들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타협안은 또 노·사위원회가 타당한 자유가 입증될 때에 한해서 경영자임명 거부권을 가지나 거부권행사의 경우 사안의 최종심의는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한편 당국이 노동자들에의해 선출된 공장경영자들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거부권을 갖도록 한다는것을 골자로하고있다.

한편 폴란드 공산당기관지 트리부나·루두도 이날 정부와 노조간 대화통로가 아직은 막혀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차기 제2차 자유노조전국대회에서는 노조내부문제가 주로 거론될 것이며 위험스런 의제는 취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싶다는 기사를게재했다.

波정부에 強硬策촉구

루마니아共產黨 權力장악劃策 소요조장

【부쿠레슈티·베를린22日AP=聯】루마니아 공산당은 22일 폴란드자유노조에대한 오랜침묵을깨고 소련권의 비난공세에 합류, 폴란드 당국에 자유노조에대한 강경책을 쓸것을 촉구했다.

또한 東獨도 이날 자유노조가 아돌프·히틀러의 폭풍돌격대의 유형을 닮아가고있다고 비난하면서 폴란드당국이 자유노조에대해 강경조처를 취할것을 요구했다.

루마니아 공산당기관지 신테이아는 이날 장문의논설기사에서 自由勞組가 권력장악을 획책하고 반혁명적행동을 일삼으며 다른東歐國의 노조들을 선동함으로써 소요를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테이아紙는 폴란드내정에 간섭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폴란드自由勞組와 반체제인사들이 폴란드에 부르좌정권을 수립하려고 시도하고있다고 비난했다.

◇두 水中다이빙狂의 水中결혼식
로버트·헤크 글린·브라운이라는 두水中다이빙狂이 21일 관광명소인 美國플로리다州 데이토너·비치北쪽 머린랜드에서 水中결혼식을 올리고있다.【데이토너·비치(플로리다州) 21일AP聯=聯】

蘇 核미사일配置 極秘자료提報

레이건、友邦에

【東京23日=聯】미국정부는 소련의 핵미사일 배치상황을 포함한 극비군사자료를 24일중 동맹국들에게 전달할예정이라고 일본 마이니찌(每日)신문이 美·日양국정부소식통을 인용, 23일 보도했다.

레이건美 대통령이 국방성및 중앙정보국(CIA)등 정보기관의 반대에도 불구, 소련의 군사적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동맹국의 방위력증강을 촉구하기위해 공개하는이번 자료에는 소련의 전략·전역핵미사일배치와 함께 육·해·공3軍의 배치상황이 상세하게 수록돼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자료를 우선동맹국들에 제공한후 오는29일공개할 예정이다.

韓半島 유사시對備

美·日작전研究착수

【東京23日=宋李彬특파원】한반도에서 전쟁발발을 상정한 美日공동작전계획의 연구가 10월에 착수될것이라고 23일 일본방위청소식통이 밝혔다.

反蘇운동 퇴치위해 原油공급 중단가능

【바르샤바23日聯合=聯】폴란드의 실력자인 정치국원스테판·올조프스키는 23일『소련은 자유노조가주동하는 폴란드내 反蘇캠페인을 퇴치하기위해 폴란드에대한 주요원자재 원유의공급을 중단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給油중에 毒物漏出

우주船 콜럼비아號

【케이프카내베랄(美플로리다州)22日UPI=聯】오는10월9일 두번째로 발사될예정인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비행관제모터에 재급유도중 독성물질이 누출되는바람에 발사일정이 연기될것같다고 케네디 우주센터대변인이 22일 밝혔다.

메아리

책의 貧血

장서 16만권을 소장한 서울의 어느 도서관에서 제발 좀 읽어 달라고 지난 8일부터 책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주민등록증 1통과 세대주의 도장만 있으면 언제나 貸本이 가능하다. 이용률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 궁금거리다.

책이란 앞에 두고도 잠시 눈길을 돌리면 그존재 자체가 망각속에 파묻힌다. 증조 할아버지가 빌린 책을 3대가 잊고 있다가 증손자가 비로소 반환한 일이 있었다. 미국신시내티대학 의학도서관에서 빌어간 「열병」이라는 책은 4대에 걸쳐 장기대본되었다가 실로 1백54년만에 제자리에 다시왔다. 벌금은 2천2백64달러 였는데 무슨 까닭인지 면제되었다. 책은 주인과의 만남에서 有用性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다.

시장경제는 공급과 수요로 성립된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읽는 사람이 많아야 출판이활발해지고 또 읽을만한 책이 나와야 독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가끔 출판업자와 독서가사이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입씨름이 벌어진다. 양서가 없다는 불평에 읽지 않으니 별수가 있느냐는 대꾸가 잇달은다. 과연 읽을만한 책이많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지금 서울에선 상당히 규모큰 전국도서전시회가 열리고 있다。74개 출판사가 1백13개의 전시대를 마련해 놓고 각종 신·구간을 선보인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그런대로 양적인 풍만감은 든다。그러나 차례대로 살펴보고나면 오히려 실망감이 눈앞을 가린다。모두 이런것뿐인가…。겉모양은 나날이 화려해지는것 같지만 목차라도펴들때 「읽을충동」을 주는것은 그리많지않다。外華內貧—。출판의 빈혈현상을 보는것같아 마음이 허전해지기까지 한다。

지난한해 국내에서 2만여종의 책이나왔다。요즘도 하루 평균 38종이 출판된다고한다。올상반기 출판현황은 작년 같은기간보다 1천5백여종이 늘어났다。가짓수는 늘었는데 발행부수는 거꾸로 1백여만권이나 줄어들었다。읽을만한책도 적고 많이 읽지도 않는다는 부끄러운 현실이 숫자로 드러난것이다。

다시 燈火可親의 가을을 맞아 오늘부터 독서주간이 시작된다。「벗삼아 읽은책 평생의 스승」이라는 교훈적인 표어와함께…。아무래도우리 燈火可親의 불빛은 책보다 텔리비전과 더 친한것 같다。「빈혈독서」를 일으켜 세울 수혈방법을 모두같이 생각해야할때다。

海外토픽

남성용 액체피임약

★코에넣으면 정충수줄어

코에넣는 남성용 액체피임약이 최근 미국에서 개발돼 일부 부작용을 제거하기위한 연구가 끝나는대로 대대적으로 보급될 전망。

캘리포니아주 설크연구소가 개발한 이신약은 뇌하수체에서 생산되는 호르몬과화학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로서 실험결과 정충수를 75~1백%까지 줄여 대단한 피임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신약을 사용한남성들이 성욕감퇴, 일시적 무력증세, 혹은 폐경기의 여성에게서 느낄수있는 증세같은 부작용을 한때 경험한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나 연구소측이 부작용제거를위한 연구에 박차를가하고있다。【보스턴=AP】

한국32弗 北韓26弗

★78년의 1人當 교육비

한국은 지난78년 1년동안 교육비로 국민1인당 32달러를 사용한데비해 북한은 26달러를 지출하는데 그쳤다고 미국의 최신판「세계군사·사회지출 목록」이 발표。

뉴욕의 월드·프라이오리티社가 매년 발간하는 이 목록은 또 아시아에서 대만이 78년 한햇동안 1인당교육비를 평균 55달러, 의료비를 35달러씩 소비한데반해 중공은 교육비와의료비에각각15달러와 6달러를지출했다고지적。이밖에 싱가포르도 국민1인당 교육비가 84달러、의료비는 57달러를 지출한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교육비와 의료비를 각각 4백89달러와 3백89달러를 소비함으로써 아시아에서 가장높은 수준을 기록。【뉴욕=CNA】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코리아 하우스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NIPPON VIDEO CENTRE
일본비데오센터

많은 한국테프가 새로 들어왔읍니다
주6일 OPEN

1993 DANFORTH AVE. TOR.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우드바인 서쪽 1 block)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오사까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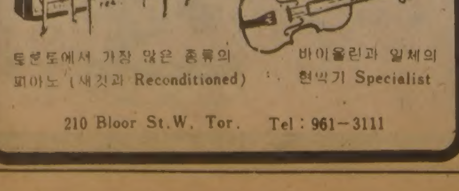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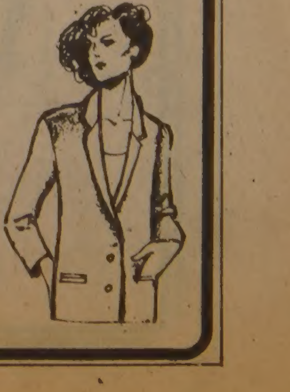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藝術批評 기준은 무엇인가

6個分野 평론가들「美的규범」토론

映畵 主觀的해석 脫皮 音樂 眞善美 함께파악
美術「現場」에서출발을 演劇「衝激의비전」캐내
舞踊 原初的美 파악을 文學 健康한 精神性을

예술비평의 기준은 무엇이며 예술비평이 서야할 자리는 어디인가를 묻고 반성하는 평론가들 스스로의 모임이 열린다. 「한국예술비평의 美的규범」이라는 주제로 26~27일 江陵 동해관광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회장 朴容九) 세미나가 그것. 이 모임에서는 鄭昞浩(中央大교수·무용평론) 李英一(東國大교수·문학평론) 劉俊相(미술평론가) 呂石基(高大교수·연극평론) 安炳燮(서울藝專교수·영화평론) 李康淑씨(서울大교수·음악평론) 등 6명이 각분야를 대표, 해당분야 비평의 객관적 기준이되는「美的 규범」에대해 토론을 벌인다.

무용평론가 鄭昞浩씨는 한국춤이 美的규범은 原初的인 아름다움을 파악하는데서 찾아야한다고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는 한국무용은 아직까지 총괄적인 평론이 서 있지 못한 입장이므로 한국인의선천적 美感에서 나온 춤의 특징을 분석, 그 공통적인 현상에서 우리 춤의 원초적인 美를 추구해야 한다는 논지를 편다.

그는 한국 춤의 미적 특징은 장식적인 춤이라기 보다는 자연주의적 인간미(속멋)를 표출하는데있다고 지적, 우리생활속에서 흔히 쓰이는 종류·취미·장난기·소박·순진·선명·융통성·개성·재주등에서 이같은 아름다움을 찾아 볼수 있다고말한다.

문학평론가 李英一씨는 문학비평에 있어서의 美的가치는『건강한 美的정신을 갖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건강한 美的정신이란『어떤 종류의 시대적 요구라든가, 全體주의와 이데올로기, 혹은 개인의 정직한 감성적 반응을 왜곡시키거나 마비시키는 퇴행적 경향을 거부하는 정신』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또 비평에 있어서의 美的가치는 오늘날 처럼 美의식도 美的가치가 극도로 혼란한 시대에 문학이라는 생명의 본질을 다루는 작가나 또는 이를수용하는 독자들에게 보다 정직하게 비판기능을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미술평론가 劉俊相씨는「인식의 제현으로서의 규범」이란 제하의 강연에서『미술평론은 미술이 있는「現場」을 찾아 보려는 시도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미술은 모든 사회적 분업과 일체를이루는 인간영위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현장」, 다시말해서 작품이나 그것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의 자세속에서 비평이시작돼야 하는데 이러한 현장을 섭렵한 비평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한국미술의 성장기라고 볼수 있는 1960년대 초반부터 평론가들의 현장을 보는 시각이 비로소 눈뜨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도 한국서양미술의 초창기인 1910년대초의 思辨的 비평의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 한국미술의 美的규범은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심층현실과의 만남에서 주창한것처럼『작품 생성의 기본구조에대한 이해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 이해는 바로 우리 민족의 美의식의 뿌리를 찾는 일이다』고 주장한다.

연극평론가 呂石基씨는 연극비평의 美的규범을 연극비평의 실용적인 고찰에서 접근했다. 그는 비평가는 ①善은 예술(가)을 위해 봉사하고 공표하는 역할②예술가와 관객사이를 중개하는 역할③史家(기록자)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呂교수는 이어 연극 비평가는『자기자신을 놀라게 해주는 연극을 찾아 낼수있는 능력, 연극에서「충격의 비전」,「詩의 비전」을 찾아낼수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극의 美的규범은 다소 獨善의 위험성은 있지만 그가 진실로 독자적인 비판의 길을 개척하는 욕망을 표출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말한다.

영화평론가 安炳燮씨는 한국에 있어서의 영화비평은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론과 창조적 시각을 제시하는것 자체가 美的규범의 접근이라고 말한다.

그는 영화비평은 일제하압제적인 정치사회적 여건때문에 객관적인 미적규범보다는 주관적인것만이 부각되어 왔다고 말하고 이에서 탈퇴하는것이 1차적과제라고강조한다.

음악평론가 李康淑씨는 음악에있어서의美的규범은지금까지 음악의 내적요소인 소리그자체와 그소리들이 화음하는 구조적인 기능에만 관심을두어왔다고 전제하면서『우리나라 음악평론의 진로는 음악내부에서만 美를 찾는 절대주의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음악을 善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사회적 여건과의 관련성으로 파악하는 관련주의음악관을 병행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또 비평은 美 따로있고 善 따로있는식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美와善, 그리고 삶의 진실인 眞까지 합쳐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는 眞善美를 美的규범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한다.
【崔成子기자】

나의 이력서

〈題字 尹致暎〉 윤치영 ⑭

痛恨의 要人暗殺

古下·夢陽·雪山 차례로 흉탄에 쓰러져
계속된 政局혼란…白凡마저 非命에가

45년12월30일 새벽, 韓民黨수석총무인 古下 宋鎭禹가 자택(서울 鍾路區 苑洞74)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쓰러졌다. 해방후 요인暗殺정치테러의 1號였다. 3개월만에 체포된 범인 韓賢宇는 古下가『訓政을 주장한데 대해 불만을 품었으며 배후는없고 순수한 愛國에서 범행을했다』고 엉뚱하게 주장했다.

古下가 암살되기 전 市中에는 左右翼을 망론하고 지도자들에 암살說이 떠도는 가운데 古下가「신탁통치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美軍政이 연장되는게 나을지 모른다」는 소위 訓政說을 주장했다는 풍문이 나돌았었다.

암살전날 古下는 金俊淵과 같이 竹添莊(뒤의 京橋莊)에서 臨時政府회의에 참석, 白凡등 臨政요인들과 신탁통치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하고 돌아왔었다. 당시 시중에선 古下가 反託운동의 방법론을 놓고 臨政측과 의견이 엇갈렸다는 얘기를 두고 古下가 贊託派라는 헛소문까지 나돌았었다.

犯行의 동기가 무지몽매한 한인간의 偏見에 의했든 배후가 여하튼간에 古下의 암살은 민족과 이나라를위해 너무나 비통한 일이었다. 정치의 순리와 大道를아는 뛰어난 민족지도자를 잃은충격과 슬픔은이루 헤아릴수가 없었다.

古下, 그는 智謀와 역량을 겸비한 拔群의 지도자요 인격자였다. 해방후엔 建國을위해 가장 애를 많이썼고 뒤에 臨政측 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릴때는 앞을 멀리내다보는 명쾌한 경륜과 이론을펴 항상 화합에 앞장섰다.

세상에선 古下암살의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나 나로선 말을 삼가고자 한다. 암울하고 슬픈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거니와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 또한 분열책동의 後章이 되지않을까하는 그것때문이다.

古下암살은 잇단 요인암살의 신호였다.

47년5월13일낮 惠化洞에서 자동차를 타고가던 勤民黨당수 夢陽 呂運亨이 被襲저격당했다. 그는 해방후 左右翼 양쪽으로부터 9번의 테러를 당하는 悲運끝에 끝내 암살의 총탄에 쓰러진것이다.

범행 5일뒤에 잡힌 범인 韓智根은『분열주의자, 민족반역자를 제거하려 했다』고 법정에서말했다. 夢陽을 암살한 범인은 建國團 단원이란 19세 청년으로 朴憲永, 許憲등 공산당 지도자들도 암살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夢陽, 그는 기구한 운명의 인물이었다. 建準으로부터 시작, 공산당과 손잡고「人共」을 하다가 결별하고 온건左派의 人民黨, 勤民黨을 만들어 고립된 정치운동을 하면서 우익과 좌익으로부터 동시에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그는 上海臨政초기엔 외교부차장을 지내기도 했고 모스크바에 가서는 스탈린 입회아래 한국인 1號로 공산당원으로 입당하기도 했다.

나는 夢陽과 일찍부터 알았다. 내가 中央학교다니던 시절 YMCA에서 그를 만났고 같이 운동을하기도했다.

夢陽과 난 자주독립의 뜻은 같았으나 해방후 그가 좌익운동에 나서면서 나와 갈라섰다. 그는 인간으로는 善人이었다.

나완 서로 뜻을 달리했으나 그의 암살소식을 들었을때 애통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지금에와선 故人이된 그를두고 정치적비판을 삼가고 싶다.

◇建國前後 政局혼란속에빚어진 잇단 政治테러는 지도자들의 목숨을앗아갔다。사진은 1949년 7월5일 白凡金九선생의 國民葬모습。

夢陽의 암살뒤에도 政情불안은 계속됐고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夢陽이 암살당한지 3개월뒤엔 初有의 검거선풍이 일어나 그여파는 오래꼬리를 물었다.

그해 12월2일 눈이 펑펑 퍼붓던날, 요인암살의 悲報가 또 날아들었다. 韓民黨정치부장인 雪山 張德秀가 祭基洞자택에서 저격당해 숨을 거뒀다. 古下가 암살당한 같은 해겨울 12월에 그도 암살당한 것이다.

당초 경찰관신분인 범인 朴光玉은『美蘇共委 참가가 못마땅해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世間에선 古下의 암살과 같은 배후가 있다고 술렁였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었다. 建國을 앞두고 단합하고 心血을 기울여도 어려운판에 민족지도자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앗다니…

雪山은 인품이 고결하고 종교적 신앙이 있는 학자적타이프의지도자였다. 雪山은 나완 早稻田大동창이자 美國컬럼비아대학에 다닐때의 學友로 허물없는 친구였다. 나는 그의 고결한 인품을 존경했다.

당시 朗山 金俊淵이 암살대상인 某某인사들의 명단이 27명가량된다는 모처의 정보를 듣고는 극도의悲憤에 그 배후를 뿌리뽑겠다고 뛰어다니던 기억이 난다.

政局의 혼란을 틈탄 이같은 무모한 정치테러는 결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6월 이나라의 巨木인 白凡金九선생의 목숨을 앗아갔다. 나는 당시 나라의 棟樑들을 어이없게도 쓰러뜨리는 암살행위에대해 통분과함께 한탄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분들이 非命에 가지않았던들 建國을위해 많은기여를 했을것을 생각하면 두고두고 가슴아픈일이다.

16회 技能競技대회開幕

기능선수 7百94명 참가

【大田=金光榮기자】제1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23일 전국11개 市·道에서 뽑힌 기능선수 7백94명과 임원들이 忠南機械공고와 東亞공고에 마련한 선수촌에 모두입촌, 하오4시 기술회의에 들어감으로써 오는 30일까지 8일간 계속될 본경기의 서막이 올랐다.

이날기술회의에선총경기시간을24시간으로하되하루8시간씩 3일간 본경기를 치르며 경기는 완전한 개인경기로 다른사람의 협동이나 협조를 일체 금하고 1백점 만점중 정밀도에 가장비중을 높여 75점을 배정하는등경기진행원칙과 심사및 채점방식등을 재확인 했다.

본경기는 24일상오 10시30분 大田시민회관에서 개회식을 가진뒤 이날하오2시부터 기계조립등 39개직종 (국제대회직종32개, 공예및 조제직종6개, 주조직종1개)별로 충남기계공고와 동아공고 경기장에서 각각 베풀어 진다.

多者間섬유協定案 摸索

先進國 관세장벽要因 해소不許

【제네바23日=聯】관세무역일반협정(GATT) 회의대표들은 22일 다자간섬유협정(MFA)의 장래에대한 타협안 모색을위한 비공식회의에 들어갔다.

한편 21일하오에 열린 GATT섬유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각국대표들은 구공시(EEC) 국가대표들의 연설을 들은뒤 MFA의 장래를 집중토의했다. 이 회의에서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들은 현재의 MFA와 같은 국제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그규모와 수정방안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MFA는 오는 12월말로 협정기간이 종료된다.

앞서 EEC대변인은 지난 7월 제3차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제출한 선진공업국의 관세장벽완화요구를 받아들일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機械類수입 多邊化

사치성商品 자율억제로 外貨절약

經濟4단체

大韓商議 全經聯 貿協 中小企協등경제4단체는외채의누증이 우리경제가 당면한최대과제중의 하나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외화절약을 위한 민간경제계의 자율대책을 마련중에있다.

23일 경제단체에 따르면 貿協주관아래 마련중에 있는 이대책은 현재日本에 편중돼있는 기계류의 수입선을 美國·유럽등지로 다변화시키고 불요불급한 사치성상품의 수입을 자율억제하며 표어및포스터를 제작, 살포하여 대대적인 외화절약운동을 벌이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경제4단체장은 최근 자리를 같이하고 연말에 가서 대외채무는 약3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등 외채의 누증에따른 원리금상환압박이 우리경제가 당면한 최대과제중의 하나라고 지적, 이같이 범국민적인 외화절약운동을 벌이기로했다는 것이다.

貿協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범국민적 외화절약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경제4단체는 또 물가의안정을 위해 민간경제계가 계속 노력하기로하고 이의 일환책으로 商議주관아래 가격표시제 실시방안을 마련, 지하상가등 유통업소가 정찰제를 실시하도록 강력히 권유할계획이다.

이협의회는 산하에▲건설플랜트▲자원공동 개발▲교역증대▲합작투자▲기술협력등의 5개분과위원회를 두고있다.

국내첫 물고기아파트 준공

廢船·폐타이어 利用64ha에

三千浦앞 바다속에

【三千浦=聯】바닷속 어족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할 국내 유일의 물고기아파트가 23일 준공됐다.

경남三千浦市는 지난7월25일 해양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총공사비 2천4백만원을 투입, 新樹島 大口부락앞 64ha에 걸쳐 물고기아파트건립공사에 착공, 못쓰는 자동차타이어 2천1백28속(속당5개)과 폐선3척을 투하, 이날 준공을 보았다.

環太平洋 統計局長 28일부터 8차會議

美東西文化센터에의해 지난69년창설된 環太平洋지역統計局長 8차회의가 오는28일부터 내달2일까지 닷새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된다.

80년도 인구센서스, 노동력인구분석, 出産力과 死亡力, 표본설계등 통계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게될 이번회의에는 美, 日, 濠, 뉴질랜드, 인도등 19개국 30여명의대표가 참가할예정.

「蘭坡음악상」수상자로 徐周希양 선정

蘭坡기념사업회(이사장 尹石重)제정, 제14회「蘭坡음악상」수상자로 피아니스트 徐周希양(사진·14)이 선정됐다.

9세때 서울에서 첫 독주회를 가진 徐양은 지난1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의 초청 독주회등 수많은 독주회및 협연을 가졌고 79년 뉴욕필 콩쿠르, 필라델피아 필콘체르트오디션등에서1등을했다. 현재 필라델피아 프렌드세렉트 스쿨과 커티스 음악학교에 재학중이다.

시상식은 29일 하오7시 水原시민회관에서열리는제13회蘭坡음악제에서거행된다.

두꺼비

안의섭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流星의 賊

<191>

李炳注作 李友範畵

明暗 ⑪

홍계남이 명청한 기분으로되었다. 그러다가 차츰 노군졸 이수상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느꼈다.

『내가 잘 못 안것이로구나』

하는 뉘우침도 솟았다.

『초면에 내 말이 너무 과했던것 같소이다』

이수상이 미안하다는 표정이 되었다.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만 내가 세상의 물정을 모른 탓이었소』

홍계남의 말은 어디까지나 공손했다.

『하기야 젊은 사람이, 뜻하는 바 있어 군문에 들어온 사람이 해이한 군기를 보고 예사로 여긴대서야 말이 되겠소。사정을 알아보면 그렇게도 된다는 얘기지, 젊은 이를 탓하는 것은 아니오。그들이 당신을 시기한다고 하나 그게 당연하지 않소。배 불리 먹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있는 청년이 남의 사정 모르고 괜히 기세를 부린다고 그들은 생각할 것 아뇨。당신의 상사도 그렇지。불쌍한 부하들을 덮어주는 것을 상부에 고자질을 했다 싶으면 야속한 생각이 들지 않겠소』

『나도 결코 고자질을 한 것은 아닙니다』

『끝이 그렇게 되어버린것 아니오。누가 남의 사정을 살살이 안답디까。내일부터는 그들을 동정하는 눈으로 보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말도 하시오。그렇게 해서 정을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정은 없이 위령(威令)만 세우려고 하면 면종복배(面從腹背)가 십상팔구하는 것이 세상이며 인심이오。나는 많은 상관을 모셔 보았소만 상관은 정(情)과 위(威)가 병행해야 정병(精兵)이 되는 것인데 앞서는 것은 정이오。헌데 이순신장군으로 말하면 군졸과 더불어 마음으로 동고동락(同苦同樂)할줄 아는 어른이오。장수의 그릇이지요。세상, 아니 나라가 그 어른을 몰라보니 참으로딱하오』

『지금 그 어른은 어디에 계십니까』

『금년 1월에 사복시(司僕寺) 주부(主簿)로 계시다가 지금은 함경도 조산보(造山堡) 만호로 계시는 것으로 아오』

『함경도는 지금 오랑캐 때문에 대단히 시끄럽다고 들었는데』

『전지(戰地)가 무인(武人)의 본령(本領)일테니까, 그런거야 상관 없겠지만…』

하고 이수상이 한숨을 쉬었다.

『왜 한숨을 쉬시오』

『병만 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주부를 따라 함경도엘 갔을텐데…내 이미 늙었으나 같이 모시고 그 어른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 마지막 봉사를 하려던것이 그 뜻을 이룰수 없이 누추하게 죽을 것을 생각하니 한숨이 저절로 납니다』

『빨리 쾌차하셔서 좋은 날을 보셔야죠』

『좋은 날?』

하고 이수상은 힘 없이 웃었다.

『그런데 출중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 어른의 벼슬이 왜 그처럼 낮을까요』

계남이 가장 궁금한 대목을 물었다。

주부라면 종육품(從六品) 벼슬밖엔 되지 않는다。42세에 주부라면 아무래도 억울하고 더더구나 변지(邊地)의 만호(萬戶)라면 보잘것 없는 직책이다。

『그 까닭은 나도 알고 싶소。조정 중신들의 눈이 썩은 명태 눈깔만도 못한거지』

이수상이 뱉듯이 말했다。

몸종이 외生

<209>

趙善作 禹慶熙畵

돌개바람불다 ⑩

플로어 위쪽무대에 플로어쇼를 하는 반라(半裸)의 여자들이 나오자 클럽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음악도 조명도 현란한 것으로 바뀌고 사람들의 동작도 매우 빨라졌다。

유감독과 함께 플로어로 나간 윤나미의 동작은 그중에도 돋보여서 살아있는 민물고기처럼 매끈한느낌이었다。

자리에 혼자 남은 나는 그와 권여사쪽에는 눈길을주지 않고 윤나미만보았다。플로어에 나온 다른 사람들도 윤나미의 춤에 경탄하는듯 그녀를 싸고 돌았으며, 그녀는관절마다 스프링이 달린듯한 경쾌한 동작으로 플로어의구석구석을 누볐다。곳곳에서 환호성과 쪽소가 터지는등클럽의 분위기는 흥분의 도가니였다。그러나 내의식은 반대로 맑고 투명해지기 시작했으며, 내가 왜여기에 와있는가, 나는 무엇이며 왜방치되어 있는가, 하는 따위의슬픈의문들을 반추하기 시작했다。

음악이 블루스로 바뀌자 나는 더욱 견딜수 없는 느낌이었다。엷핏눈에 들어온 그의 가슴에 안긴 권여사에게 마저도 나는 저열한 질투의 감정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나는 내가 유장훈감독의 특별한 호의에 의해서 이 여행에 동반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게다가 권여사와 윤나미는 이 여행의 후원자이며, 그마저도 불편하나마 내 동행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플로어에 나간 그들 모두에게 질시(疾視)를 보냈다。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문어처럼 흐느적거리는 천박한 사람들。머리는비고 감각만 야들야들한 단세포 동물들。바보들, 저능아들。음담패설에나 입을 헤벌리는 불결한 인간들。그러나 나는 내 이런 저주가 세련되지 못한 원색적인 감정의 발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으며, 그들이야말로 밝고 건강하며 쾌활한 세계를사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다。음침하고 삐뚤어지고 자학적이며 불건강한 세계를 사는 내 눈은 이미 사팔뜨기가 되었으며, 감정은 분열증을 일으키기 시작한것이다。

일행이 나이트클럽을 철수한것은 자정이 지나서였다。나는 나도 짐작할수없을만큼 많이 마셨기때문에 자리에서 일어설때는 걸음마저 불안정한 느낌이었다。그래도 나는 안간힘을써서 똑바로 걸었다。내가 분열증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어서는 안되었던것이다。클럽의 출구근처에 이르렀을때 나는 걸음을 서둘러 그의곁으로 바짝 다가갔다。나는그에게 부축해달라고 말하고싶었다。그러나 자존심이 허락하지않았다。그가 힐끗 나를 돌아보는 눈치였다。나는 그의 눈에서 연민이 살짝 넘친 저주의 빛을보았다。나는 발작이라도 일으킬듯한 느낌이었다。

『이따가 방으로 가겠어요』

그가 놀라는 표정으로 나를 다시 돌아보았다。나는그의 시선을 피해 서너걸음 재빨리 달렸다。호텔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일행의 선두였다。뒤에서 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나는 그들의 목소리 가운데서 그의 것을 가려 내려고했지만 그러지 못했다。설마금방 내가 한 말을 그들에게털어 놓치야 않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그래도 상관없어, 하고 나는 고쳐 생각하기도 했다。괴도(怪盜)루팡인가는 범행 전에 반드시 예고(豫告)부터 하지 않던가。두려움에 떨게 하고, 다음에 신출귀몰의 수법으로감쪽같이 해치우는 것이다。그러나 내게 신출귀몰의 수법따위는 없었다。그의 방에는 유장훈 감독이 함께 자고 있고, 방문을 잠그면 출입의수단마저 없는 것이다。유감독을 잠들게 해놓고 그가 문을잠그지 않은채 나를 기다릴까닭은 없었다。스포츠 이상의 의미가 없는 행동이나마더 이상은 내 뜻에 부응할의사가 그에게는 없는것이다。

중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창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문여러분께 알림

그동안 격조했던 여러 동문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특히 이번 모임은 황종건(전 계명대학 대학원장)동문의 귀국환송과 고재혁(토론토 한국교육원장)동문의 환영회도 아울러 가지려고 하오니 모든 동문께서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 10월10일(토) 오후7시
장 소 : 동궁식당(757-6334)
회 비 : 15달러
연락처 : 배 용 진 978-3299
이 영 철 239-6802
이 치 우 293-4438
정 철 기 469-1103
임 방 식 242-471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뉴TV한국프로 렌트 아쎄일

이곳 카나다 토론토 선미광고에서는 국내방송 관계 기관및 비디오업계의 협찬으로 전 미주지역에 최다수의 필림을 가지고 멀어져간 우리들의 전통과 예술, 연극은 물론 우리 언어를 배우는 2세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져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다 많은 비디오 작품을 새로 마련하였아오니(국내, 국외 연예프로) 직접 방문 또는 연락바라겠읍니다.

대표 구 본 모 올림

善美廣告 454A BLOOR ST. W. TORONTO M5DO PA 31
B. 416-531-6430 R. 416-746-3712

개 업 인 사

교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및 개인문제 심리상담을 시작하였읍니다.

사무시간 : 토요일(예약요망)

장 소 : SUITE 406
600 Sherbourne St.
(at Bloor)
TORONTO, ONT.

예약전화 : (705) 549-3454
(Collect Call무방)
토요일에 한하여
(토론토) 923-3336

철학박사 심리학자 김 보 경 배상

馬山女高 2승으로 先頭

국제中高농구 祥明女高 60-57로 제압

제11회 추계 중고농구연맹전 3일째경기가 23일 大邱南高와 舞鶴女高체육관서 속행, 여고 C조서 馬山女高는 祥明女高를 60-57로 제압, 2승으로 선두에 나섰다. 또한 B조서 釜山惠花는 春川女高를 55-47로 격파, 1승1패를 기록, 2승의 培聖女商에 이어 B조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한편 남고B조에서 濟州新興高는 釜山中央高와 연장전을 벌이는 격전끝에 79-69로 득승, 1승1패를 기록했다.

◇제3일전적
▲남고B조 청주신흥 79 (15-5 33-33 13-31) 69 양산중부 (1승1패)(2패)
▲남중A조 광신 33-30 전주남 (1승1패)(1패)
▲동C조 소년의집 49-31 여수 (1승)(1패)
▲동D조 마산동 52-35 양정 (2승)(1패)
▲여고A조 신광여고 71 (32-19 39-18) 37 속초여고 (1승)(3패)
▲동B조 부산혜화 55 (28-20 27-27) 47 춘천여고
▲동C조 마산여고 60 (23-25 37-32) 57 상명여고 (2승)(1승1패)
▲여중B조 덕성 31-17 은광 (2승)(2패)
▲동C조 동주 31-22 창곡 (1승)(1패)
▲동E조 성덕 46-31 중앙 (2승)(1패)
▲동순위=①배성2승②혜화1승1패③춘천2패

培明中 3體級석권

中高태권도, 5連覇노린 漢榮에도전

제17회대한태권도협회장기쟁탈전겸 제8회 중고교남녀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이틀째경기가 23일 국기원에서속행, 培明中은 이날끝난 핀급, 플라이, 밴텀, 페더급등 4개체급에서 페더급을 제외한 3개체급을 석권, 5連覇를노리는 漢榮中에 강력히 도전하고있다.

이날 중등부 핀급결승서 培明中 李鍾海은 강호 康哲佑(한영)와 시종접전을 펼친끝에 판정승했으며 플라이급의 崔滿圭(배명)도 金永俊(고려)과 판정으로 승부를 가리고 우승했다.

◇제2일전적 (체급별 우승자) ▲중등부 핀급=李鍾海 (배명) ▲동플라이=崔滿圭 (배명) ▲동밴텀=申在均 (배명) ▲페더=吳泳周 (한영)

한국野球의 看板스타 崔東原 블루제이스팀과 入團계약

崔선수 "처음條件과달라 무효화 합의했다"

【터론토·시카고=柳承珉·尹赫특파원】 터론토·블루·제이스구단은 22일 하오3시30분(현지시간) 터론토·엑스비션·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국가대표팀투수 崔東原과 입단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워드·스타크맨 공보담당은 崔東原과 멀티·이어(1년이상)의 계약을맺었으나 계약금과 연봉등 자세한내용은 현재로서 밝힐수가없다고 말했다. 스카웃·디렉터 봅·플랜티스는 崔東原의 병역문제에언급, 『개인채널을통해 한국정부와 교섭할 용의가있다』고 말하고 내년2월 40명이참가하는 스프링캠프에 참가시킨후 82년시즌에 출전할25명가운데도 포함될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본인인 崔東原 (롯데)과 그의후견인인 아버지 崔允植씨는 23일『서울에서 가계약서에 일단 사인까지했으나 계약조건의 내용이 당초와 너무틀려 분명히 쌍방간에 무효화하기로 합의했었다. 계약금도 물론 받지않았다』고 말했다. 崔씨가밝힌 당시의 계약내용은 연봉은 4년간 61만달러.

◇崔東原

契約은 소속팀 롯데모르게

블루·제이스入團시비…崔東原

(해설)

터론토로 가느냐, 안가느냐. 23일 캐나다의 터론토로부터 날아온 外信보도가 국내야구계를 경악과 흥분속에 몰아넣고있다. 한국의 간판 투수인 崔東原이 캐나다의대륙간 컵대회에서 최우수투수상을받고 돌아온지 한달만에 터론토에 근거를둔 美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어메리칸·리그의 터론토·블루·제이스가 崔東原의 입단계약체결을 공식발표했기때문이다.

블루·제이스는 지난주 구단의 인사부장 엘리엇·웨일등 3명의 대표가 서울을 방문, 崔東原으로부터 입단서약을 받았으며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메이저·리그선수로 등록돼 내년2월 플로리다써더니든의 스프링·트레이닝에 참가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실업 최강팀 롯데숙소에 묶고있는 崔東原의 반응은 정반대. 崔는 『지난15일 플라자·호텔에서 터론토에서 온 사람들과 만나 사인까지 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설명한 메이저·리그 첫해 연봉 최상한선 3만2천5백달러가 사실은 최하한선임을 뒤늦게 알고 합의,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계약사인 당일 현장에는 블루·제이스의 인사부장웨일과 스카웃감독관 봅·주크, 스카우터 웨인·모간등 터론토의 대표3명과 崔東原, 崔의 아버지 崔允植씨(롯데 부장), 그리고 양측을 중재, 통역한 前국가대표농구선수 金明子씨가 함께 자리했다. 崔東原은『터론토·블루·제이스의계약은 사기와같은것이었다. 어디다 고소할 방법이 없느냐』고흥분하면서소속팀 롯데에는 이제까지말한 마디도하지않았다고밝혔다.

소속팀도 모르게 은밀히 추진되었던 崔東原의 美프로야구진출계획은 일련의 2천7백달러 (한화 약 1백89만원)라는 기대이하의연봉제의와계약문서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격앙된 감정으로 블루·제이스의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다. 또한 현실적으로 崔東原이 군복무면제의 특혜를 받을수 있느냐는 어려움이 남아있다. 【東】

年俸 3만2천弗조건 사인하고 最下대우 뒤늦게알고 계약파기

한장의 名畵 둘러싼 外交秘話

亡命게르니카, 어떻게 祖國에 돌아갔나

피카소가 스페인政府서 돈받은 領收證찾아 매듭

作家 "民主主義회복되면 주라"…그希望 성숙단계

歐洲通信

우리시대에 있어서의 가장 유명한 화가의 가장유명한 그림인 피카소의「게르니카」가 44년동안의 망명생활끝에 지난 9월10일 스페인으로 귀환했다.「스페인에 민주주의가 회복되거든 돌려주라」는 피카소의 희망에 따라 그동안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보관중이던 이 그림은 1975년 프랑코가 죽으면서 반환문제가 떠들썩하더니 결국은 그후로 6년이 지나서야 겨우 실현이 됐다. 스페인으로서는 싯가 4천만달러짜리로 평가되는「게르니카」의 그림으로서의 가치도 중요한것이지만「게르니카」의 귀국은 곧 민주주의의 회복을 세계적으로 立證하는것이어서 그동안 어떤 외교 못지않은 끈질긴 교섭을 해왔다.

사실 금년초까지만해도 이 그림의 거취에 대해 발언권을 쥔 피카소의 가족과 변호사측이 스페인의 민주주의가 아직 완전상태가 아니라는 관점을 내려 이 그림의 장래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몇달동안에 교섭이 급진전을 보게됐다. 그사이에 스페인의 민주주의가 크게 달라진것도 아닌데 그러면 왜가. 한장의 문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게르니카」의 반환교섭을 책임 맡았던 올해 60세의 스페인 외교관 킨타닐라씨는 지금 한권의 책을 집필중이다. 이 책은 그가 어떻게 이 문제의 문서를 찾아냈으며 이것이 반환교섭을 어떻게 성취시켰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게된다. 문서란 피카소가「게르니카」를 그릴때 당시의 스페인정부로부터 프랑스돈으로 15만프랑(지금은 1백만프랑에 해당·약1억2천만원)의 돈을받았다는 증빙서류다. 피카소가 이 그림을 스페인 정부에 판 것이라면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지않고 스페인정부에 있는것이다. 임자가 스페인정부라면 민주주의 나라건 아니건 작가가 개의할 일이 아니다.「게르니카」는 당장 마드리드로 돌아가야 옳다.

피카소가「게르니카」를 제작하던 당시로 되돌아가 1937년. 프랑코의 파쇼반란세력과 인민전선 정부사이의 스페인內戰이 한창때였다. 스페인 정부측으로서는 그들의운명이 당시 프랑스인민전선 내각의 태도에 크게 달려 있었고 그래서 미온적인 프랑스정부를 자극하는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해 1월 스페인공화정부의 문화상은 파리에있는 피카소에게 그해7월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의 스페인館을 장식할 벽화를 청탁했다. 피카소는 수락했으나 일을 시작하지 않고있었다. 프랑스주재 스페인대사이던 아라키스텐씨가 피카소를 만나 다시 권유를 했다. 4월26일 나치 공군기의 게르니카 마을에 대한 폭격이 있었다. 이 학살을 테마로 피카소는 5월초 초벌그림을 끝냈다. 이 무렵 15만프랑의 돈이 스페인정부로부터 피카소에게 전네졌다. 피카소 본인 외에 이돈의 授受를 아는 사람은 단 세사람. 당시 파리주재 스페인대사관의 정보책임자, 문화담당 고문이던 詩人 막스·오브, 그리고 대사인 아라키스텐 뿐이었다. 대사는 피카소가 서명한 15만프랑에 대한 영수증을 마드리드정부의 외무성에 보냈다.

만국박람회에서「게르니카」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스페인內戰은 점차 공화정부에 불리해져갔다. 아라키스텐대사는「게르니카」의 소개조치를 정부에 진언했다. 이때 정부측에서는 피카소의 영수증이 폭격의 소란틈에 분실되었다는것을 알려왔다. 스페인정부는 법적으로「게르니카」의 소유권을 주장할근거를 잃어버렸다. 그 사이에 피카소는 이그림을 미국으로 피난시켜 뉴욕현대미술관에 임시보관케 했다. 피카소로서는 소유권은 없더라도 이미 스페인 공화정부의 敗色이 짙은것을알고 작가의 양심상 그림을 프랑코정권에 넘겨주기 싫어서 그랬다고 이해할수 있다.

1951년 제네바에 망명생활중이던 前파리주재 스페인대사 아라키스텐씨는 피카소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이 편지에서「게르니카」가 미국에 가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 그림은 스페인것이니 스페인에 독재정권이 물러나면 돌아와야 할것이라고 소유권을 환기시켰다. 피카소는 아무대답도 하지않았다고 한다.

피카소가 15만프랑의 돈을 받고「게르니카」를 그렸다는 이야기를 킨타닐라씨가 들은것은 3년전이었다.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1937년당시 파리주재 스페인 대사관의 정보책임자였고 이사람은 바로 킨타닐라씨의 숙부였다. 킨타닐라씨는 즉각 스페인정부에 이정보를 알렸고 정부에서는 관계문서의 수색작업을 킨타닐라씨에게 의뢰했다. 제네바에 망명중이던 아라키스텐대사는 죽고 없었다. 킨타닐라씨는 아라키스텐대사의 며느리로부터 창고속에쌓인 옛날 파리주재 스페인대사관의 서류뭉치를 큰돈을 주고샀다. 이것을 하나하나 뒤진 끝에 한장의 문서를 발견했다. 15만프랑에 대한 회계문서였다.「게르니카」는 스페인정부가 산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것이다.

킨타닐라씨는 이 문서를 복사하여 피카소의 가족을 차례로 만났다. 피카소가족의 변호사는 이문서가진짜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변호사는 후안·카를로스 스페인王이 만나자는것도 피했다.

결국 아돌프·수아레즈前首相이 파리에왔을때 이변호사를 만나 양보를 얻었다. 피카소의 가족으로서는 이문서가 법정에 나설때 많은액수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는지 모른다는위협부담이 있었다.

킨타닐라씨를 책임자로 한 스페인의 교섭대표들은 지난4월 뉴욕 현대미술관측과 마지막 담판을했다. 미술관측에서는 사이러스·밴스前國務長官등 미국의 저명한 법률사무소에 물었다. 변호사들은 스페인정부에 소유권이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9월9일 게르니카는 뉴욕시민들의 방해공작을 피하기위해 보험에도들지않은채 극비리에 뉴욕을 떠났다.

【파리=金聖佑특파원】

어제 瑞山남서쪽 15km 震度2度의 微震

상오8시13분發生

23일 상오8시13분께 충남瑞山 남서쪽15km에서 진도2으로 충남 瑞山·唐津郡일원도의 미진(微震)이 발생했다고중앙관상대가발표했다. 10초간격으로 5~6초간 2회에걸쳐 발생한 이 미진에서는 밥상위의 물컵과 창문이 흔들렸다. 瑞山군수 朴贊式씨는 아침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초음속비행기가 지나가듯「웅」소리와 함께 집유리창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361

妻子두고 渡美…僑胞여인들 농락

韓人教會 퇴폐牧師 구속

"離婚하러간다" 함께歸國 여대생도 被害

서울시경외사과는 23일재미한인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20대 여대생신도를 피어도주, 귀국한 기독교 대한하나님의성회 목사 崔彰洙씨 (42·서울西大門區天然洞 금화아파트 11동306호)를 혼인빙자간음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崔씨는 지난해12월26일 도미, 워싱턴州 올림피아市 에버그린한인교회 목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3월11일 시애틀의 여관에서 이교회 여신도 尹모양 (21·워싱턴大전자공학과1년)에게『본처와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속여 정을 맺은뒤 교포여인을 상대로 아파트·여관·공원·자동차안등에서 상습적으로 퇴폐행위를 해왔다는것.

피해자의 한사람인 尹양에 의하면 崔씨는 지난7월20일 교회헌금 5천달러를갖고 지난달 1일 尹양과함께 귀국, 모여관에 묵게한뒤『본처가 이혼을 승락하지 않는다』며 결혼을 거부했다는것.

지난72년 언니의 초청으로 이민, 워싱턴大에서 공부해온 尹양은 8천달러씩 받는 장학금을 받을수 없어 학업을 중단했고 崔씨가 여관에서 종류미상의 약을먹인후 정사를 요구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해 고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서울에 부인 鄭모씨 (38)와 2남1녀가있는 崔씨는 관계한 여인은 노출컬러사진을 찍어두어 문제화될것을 방지하는등 교묘한 숫법을 써왔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崔씨가 잠적하자 올림피아市 한인순복음교회신도들은『이같은 퇴폐목사를 추방하자』는 운동을 전개, 재미교포의 위신을 추락시키는일이 없도록하자는 전면광고를 내기도했다는것이다.

20代처녀 被襲

歸家中 칼에찔려 重態

【大邱=聯合】22일 하오10시20분께 大邱市東區新川洞3區768의26, 安모씨 (50)집앞 골목길에서 귀가중이던 金춘영양 (27·大邱市東區新川3區768·영남주택5호)이 칼을든 괴한으로부터 피습을당해 가슴과 귀밑 두군데를 찔려 중태에 빠졌다.

金양에 따르면 이날밤 피습장소에서 1백50m떨어진 언니집인 大邱市新川洞 동구아파트10동6호에서 놀다가 귀가중이었는데 집근처 골목길에서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 다짜고짜 칼로 金양의 오른쪽 젖가슴밑과 귀밑을찔러 金양이 강도인줄알고 엉겁결에 갖고있던 현금1만7천원이 이든 손지갑을 던져주자 이를받아 달아났다는 것이다.

金양은 피습을당한뒤 피를 흘리며 자기집쪽으로 70m쯤 기어가다가 행인에 발견, 경찰에 신고됐다. 金양은 慶北大부속병원에 입원가료중인데 출혈이 심해 의식불명이다.

男子머리카락 鑑定

女大生피살 容疑者알리바이추궁

속보=여대생 朴尙恩양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朴양이입고있던 T셔츠에서 범인의것으로 보이는 길이8cm의 머리카락 2개를 채취,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朴양이 입었던 청바지의 무릎 엉덩부분및 22일 찾아낸 슬리퍼 바닥의 흙과 모래가 시체발견현장의것과 다른지의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朴양이 최근1~2년사이에 가깝게지낸 남자친구와 美國연수 (7월13~8월17일)를 함께갔던 31명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하고있으나 아무런혐의점을 찾지못했다.

한편 부검을마친 朴양의시체는 이날새벽4시30분 가족들에게 돌려졌다.

88年五輪개최지 나고야우세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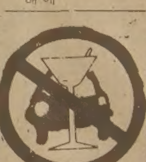
西獨日刊紙보도

【프랑크푸르트=南玎鎬특파원】88년 올림픽개최지를 결정할 제84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를 앞두고 이곳 西獨신문들의전망은 나고야우세로 기울어지고있다.

詩人 趙泰一씨宣告 징역2년·執猶3年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시인 趙泰一씨 (40)에대한 계엄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趙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 원심형량을 확정했다.

趙씨는 국제펜클럽 한국지부 회원으로있던 지난해 5월16일 서울 鍾路區 淸進洞 모음식점에서 高銀·金炳傑씨등 회원25명이 참석한가운데 지부 임시총회를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주장하는 내용을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결의하는등계엄포고령을위반한혐의로구속기소됐었다.



百20만원짜리 變造수표搜査

銀行창구서發見

22일상오 제일은행 鍾路十里지점에 박석금씨 (34·여·가구점업·서울東大門區墨洞1·76)가 교환하려왔던 액면1백20만원짜리 수표가 변조된것임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국柔道대표 귀국

네덜란드 세계유도선수권대회서 유도사상 처음 라이트급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선수단이 23일하오 KAL편으로 개선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레너드·헌즈 再경기벌일듯

내년5월께 슈트어트 매니저밝혀

【디트로이트21日AP=聯合】프로복싱WBA·WBC웰터급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와 前WBA웰터급챔피언 토머스·헌즈간의 재경기가 내년 8월이나 빠르면 5월경에 열릴것같다고 헌즈의 매니저겸 트레이너인 에마누엘·스튜어드가 21일 밝혔다.

스튜어드 매니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즈가 지난주 레너드에 패배한 뒤 실의에 빠져있다고 전하고 헌즈의 재기를위해 오는 11월27일 마키스·제럴드와의 재기전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헌즈는 재기전에서 1백45파운드의 체중을 1백49파운드로 올려 주니어·미들급으로 싸우게 될것이라고 스튜어드 매니저는 덧붙였다. 그는 또 헌즈가 레너드와의 대전당시 6회에 거의 KO敗할뻔했으나 그의 뛰어난 신체적강인함과 기술이 이를 모면케했다고 털어놓으면서 헌즈가 불과 4분을 남겨놓고 승리를 빼앗겼다고 통탄해했다.

培文·普成공동우승

中高아이스하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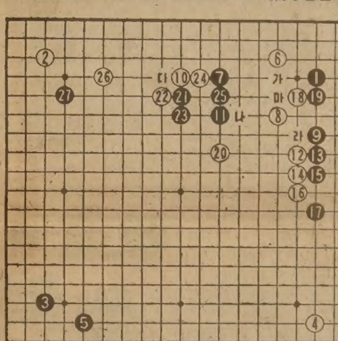
培文高와 普成高가 22일 동대문실내링크에서 막을내린 제1회서울시장기쟁탈 서울시중고아이스하키대회고등부서 공동우승을 차지했으며 중등부서는 光城中이 徽文中을 5-2로누르고 우승했다. 普成高와 培文高는 연장전까지벌이는 접전을 벌였으나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최종일결승전
▲고등부 배문고 4 (1-1 1-0 1-2 延1-1) 4 보성고
▲중등부 광성 5-2 휘문

주간女性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黃4局 第2譜 1~27 (각5시간 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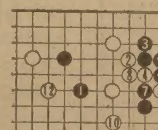
白 (4段) 鄭 銖 鉉 〈1敗〉
黑 (6段) 徐 能 旭 〈1敗〉

黑1、3과 白2、4로 된데서 ✕字間刻의 중앙은 물론 天元자리이다. 徐6단이 黑5로 天元에 두어볼까 한 말은 실상 순간적으로 생긴 호기심때문이지 당연히 좌하귀를 굳혀야 순리적인 포석이다. 단지 4귀가 똑같은 모양에서는 5를 6자리에 굳혀도 역시 마찬가지임은 말할 필요도없다.

白6은絶對. 黑에게 이곳마저 두게하여 양굳힘을 당하면 그야말로 바둑이 아니다. 이白6으로「가」자리에 걸치는것은 黑이 6에붙여 끄는 정석을 택하여 귀의실리를 착실히 확보해 버리므로 白6자리가 가장 적절한 걸침인 것이다.

黑7놓은 협공에서부터 평범한 진행이다. 그러나 黑11로 젖수에 대해서는 蛇足같지만 말해둘 일이있다. 黑11을「나」자리에 日字로 비스듬히 뛰는수는어떠냐이다. 물론 黑「나」도 없는 수는 아니다. 다만 白10이「다」쯤으로 느슨하게 협공되어있다면 모르되 본보처럼 참고도의 발가깝게 육박되어있을때 黑1은 가사 白2이하12까지를 예상하더라도 黑이 불리한싸움을 겪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黑11은 正手.

徐6段의 實利作戰



白12때 黑13으로「라」에나와 급한 급전을 피하고 17까지 실리를 차지한 것은 좌하귀를 黑3、5로 굳힌뒤 일관된 작전인가싶지만 그대신 白은 26의요소에 선착하여 활기찬진용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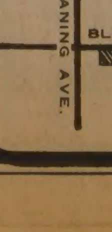
이래서 黑27이 시급했는데─.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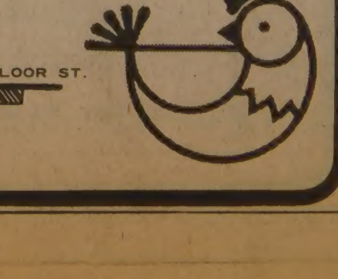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745-5485 미세스 황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쪽의 다가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416) 222-9480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식 중국음식 뺑켓,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성찬
영업시간: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한국인의 통닭집
NEW OPENING SPECIALS
한국사람 입에 맞는 통닭구이 집을 개업했읍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1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 파티용 샌드위치통닭
●각종 Meat취급(불고기, 갈비포함)
※거리 불문코 배달함(단, 파티용 샌드위치 주문은 하루전에 연락을 요망)
미스타 김
미스타 리 올림
658 ½ BLOOR STREET W.
전 화: 537-0432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 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53-068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 7PM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30AM~새벽2시까지
토 일: 2:00PM~2: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김선남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불 광 사
지도법사: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참선지도)
주 소: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223-9152